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찾아 사역이
나아가 세속에 물들어 온갖 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알리려
하지만 정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며 마지막 날에 지구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주께로 돌아오는 역
사가 일어나며 생명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은혜를 주시
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
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
으로 배신바 된 백성은 복
이 있다
(시편 33편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40호 2011년 7월 2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뉴욕 주 동성결혼 합법화...미 역사전복

결혼평등법 24일 뉴욕상원 통과...7월 24일부터 혼인신고 가능

뉴욕 주에서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뉴욕 주 상원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밤 10시경, 33대 29로 앞서 15일에 주 의회 하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결혼평등법안'(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켰다.

뉴욕 주는 이로써 미국에서는 여섯 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됐다. 이들 주 가운데서도 뉴욕 주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서, 향후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일반화 해나가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결과에 힘을 받은 동성애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뉴욕 주에서의 '승리'를 발판삼아 타 주들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5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대부분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연방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채택하고 있다. 31개 주는 아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금지를 주 헌법에 못 박았다. 이런 확고한 법적 기반 위에서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주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뉴욕 주 결혼평등법 통과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개인적 소신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상승기류로 치솟는 동성결혼 찬성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로 미국 역사에 결정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동성결혼 법안 통과 찬성 반대 지지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결혼평등법' 법안 통과를 위해서 필요로 되는 표 수는 총 62명 가운데 32명 이상으로, 당초 상원들 가운데서 법안이 확실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이들의 수는 31명이었으나,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더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법안은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뉴욕 주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가족 가치, 남녀간 성 차이, 보수적인 정치 신념 등을 감안할 때 결혼평등 법안은 올해 뉴욕 주에서 절대로 통과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33대 29로 찬성. 민주당은 한 명만 제외하고 다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네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극적인 반전이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32표보다 한 표를 더 받아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2년 전 이미 부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다.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기반인 보수적인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 분명했다. 보수 유권자 단체들은 "만일 동성 결혼법에 찬성표를 던지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해왔다. 그러나 이날 9시간 동안의 긴 마라톤 상원 토론 끝에 공화당은 운명적인 결정을 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데 동의하고 의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 표결토록 했다.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도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04년 뉴욕 주민의 37%만이 동성결혼에 찬성했지만 올해 여론조사를 보면 57%나 찬성하고 있다.

표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진 스티븐 셸랜드 의원은 "동성결혼은 다루기에 극도로 어려운 사안이었다"며 "이 결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주겠지만 결혼을 포함해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바른 일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역시 마지막에 찬성 쪽으로 표를 결정한 마크 그리산티 의원도 "가톨릭 교인으로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만 가능하다고 믿어 왔지만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막을 권리는 나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에 반대했던 이유로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루벤 디아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늘 가족적 가치를 옹호해왔던 공화당 의원들에 의

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비판했다.

따라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동성결혼 찬성자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공화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으로부터 외면당함으로써 정치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정치 분석 기관인 센터 포 리스폰시브 폴리틱스(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는 발표했다.

이번 일로 쿠오모 주지사는 정치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쿠오모는 공화당의 가장 '큰 손(정치헌금 기부자)'까지 만나 협조를 구했다. '큰 손'의 자녀는 동성애자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 가정사와 정치를 결부시키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3면으로 계속)

동아시아 선교의 요람으로!

장영준 박사, 캄보디아국제신학교 총장 취임



김상덕 목사가 장영준 신임 총장(왼쪽)에게 패를 증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제신학대학/신학교(International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TCS) 신임 총장으로 장영준 박사(본지 발행인,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가 취임했다.

지난 18일 1대 장상선, 2대 김의환 총장에 이어 3대 총장으로 취임한 장 박사는 "전임 총장들이 했던 것처럼 졸업식 등 연 2회 정도 방문해서 학사관리 및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캄보디아는 동남아의 핵심 지역으로 이 학교가 동남아 복음화를 위한 정예부대가 되도록 기도하고 교육하며 교수요원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동 신학교가 목회학석사 과정을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도 소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준 박사가 가진 글로벌화된 식견과 신학교 운영의 노하우 그리고 굵직한 개혁신주의적 보수 신학이, ICTS를 탄실하게 살려주리라 기대가 미주한인교회나 한국교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미주한인교회들과 한인신학교 그리고 ICTS의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효과적이고 동아시아 상황에 최적화된 선교 이론과 실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대한민국의 약 2배의 면적에 인구는 1400만 명이 조금 넘는 개발도상국이다. 한때는 지금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차지했을 정도로 강대했던 때도 있었고 근대화해 접어들면서는 프랑크 식민지로 전락한 아픈 역사도 지니고 있다.

ITCS는 이러한 캄보디아의 상황에 걸 맞는 복음을 전하고자 2008년 9월 4명의 신학생들, 16명의 대학생 그리고 70명의 목회학 과정 학생들로 창립됐다. ITCS 창립에는 복음장로교회와 담임 김상덕 목사의 열정과 헌신이 근간이 된다. 3백만 달러를 들여 학교 건물과 기숙사를 지었으며 전교생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급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졸업생들과 교수임원들



2면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7면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박재호 목사(브라질새소망교회 담임)



15면

'하나님의 뜻 나타냄' 이 기독교 리더십!



16면

인터뷰 황지용 목사(군목)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리를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1년 가을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6시
- 3 입 학 시 험 : 2011년 9월 10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1년 9월 12일(월) - 9월 14일(수) 오후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여름철 사역을 생각해 본다



원중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여름철이 되었다. 9개월가량 공부하고 3개월가량 쉬는 학교 사이클이 일반 가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래서 여름이면 어디로든지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로 가득하다. 교회는 일찍부터 이런 계절의 정서를 잘 활용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여름성경학교(VBS) 혹은 수련회를 들 수 있다. 일반 학교에 비하여 교회학교의 수업일수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적으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하여

여 일종의 집중강의(intensive course)와 같은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평소 부족했던 것을 메꾸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래교회의 기둥이 될 세대들의 전인적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또 다른 여름철 노력으로는 비전 트립 혹은 단기방문선교(단기선교)를 빼놓을 수 없다. 경제가 사상이 된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또한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보다 자기사랑이 두드러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려고 가르치기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고 싶은 여름정서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선교지를 방문하도록 돕기 시작한 자가 제법 되었으며, 선교, 선교지 및 선교사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단기방문선교는 고비용사역임에는 틀림없지만 총체적인 신앙성장의 기회이기도하며 영혼의 값어치만큼 값진 일이기도 하니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이런 특별교육과 단기방문선교가 의도하지 않은 길로 흐르는 것 같아 적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은 역시 경쟁의식이다. 개인 이기심처럼 집단이기주의가 심하게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개인이나 회사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일부 지역교회들 역시 집단이기주의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이나 단체 할 것 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경쟁상대가 아니다.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적극적인 협력의 관계이다. 개 교회 여름성경학교나 단기방문선교도 이런 틀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일차적으로 자 교회 내부적인 사역이다. 교회내부의 자녀들에게 미진한 교육을 하려는 것이며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나 협력하는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를 잊은 사람들의 지나치게 경쟁적인 신문광고나 필요 이상의 외부선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을 때가 있다.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참여 숫자 불리거나 주변 교회를 의식한 무리한 프로그램 도입, 시장의 가격경쟁을 연상케 하는 등록금 내리기 등은 협력하여 구원해야 할 불신영혼들의 이맛살까지도 찌푸리게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큰 교회들은 주변의 약한 교회들을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단기선교도 그렇다. 여러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세운 단기선교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들은 지역교회에 문을 열어놓고 있고 선교단체는 교회와 지역, 교단을 초월하여 동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교가 호기심이나 권위 차원에서 한 번 다녀오고 끝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단회적 관심으로 시작했다 해도 지속적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다니는 교회의 선교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직접 주관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지정하여 연결된 선교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다녀오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 방문으로 그칠 수 있고, 나아가 자칫 교회와 전략이 다른 선교방법론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여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혹시 선교지가 없는 주변의 약한 교회들과 연계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있음의 자랑'보다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체계를 갖춘 교회들 주변에서 일종의 바람직하지 않은 불쾌할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교회공동체 본질의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과 규모를 떠나 여름철 신앙의 현장이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바라며,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한 자성의 쓴소리를 건네 본다.

'미국이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미 독립 235주년...독립선언서 천명 '하나님의 섭리' 기억하기 운동 전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꼽히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건국이념을 되새겨보는 날이다. 이날은 1776년 7월 4일 당시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것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워싱턴DC 내 미 국립문서보관소에는 항상 미국인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미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미 독립선언서 원본을 보기 위해서다. 1776년 7월 4일에 채택된 미 독립선언서는 미국에서는 국보 1호로 통한다. 미국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 당시 영국의 폭정에 대항해 일어난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이 독립선언서 원본 내용과 당시 배경을 소개한다.



총 4장으로 구성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사상적, 이념적 배경 및 영국의 구체적 압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2장에 나타난 독립선언의 사상적 배경은 미국의 건국이념으로 중시되고 있다. 독립선언서 2장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이 때문에 미국 독립선언서는 근대인권선언의 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보다 앞에 있던 권리장전이나 권리장원은 특권신분의 이익을 국왕의 승인한 것이었지만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몇 년 뒤 일어난 프랑스 시민혁명의 자극제가 됐다.

독립선언서를 채택할 당시 미국에 노예제도,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한 탄압 등이 있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문구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독립선언서 2장에 나타난 천부인권 선언은 미국이 이후 국가를 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뜻대가 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법권 및 식민지 의회를 인정하지 않은 것, 불법적으로 군대를 주둔시켜 압정을 자행한 것,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한 것 등을 들었다.

독립선언서 4장은 3장에서 열거한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한다는 내용이다. “(전략) 이에 아메리카의 연합 제주의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7월 3일 하나님께 재헌신 주일예배 갖기 캠페인 전개 하나님이 부여한 자연권 및 민족자결 이념 내세우며 가호 의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2007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독립전쟁에 참가했던 애국선열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됐고 이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신념 아래 싸웠다”며 “건국 이래 미국인들은 이런 이상을 진전시킴으로써 전세계 사람들에게 자유의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 미국의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자유로운 민족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선언서 1장은 서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이 부여한 자연권 및 민족자결의 이념을 내세우며 독립의 필연성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독립선언서 3장에는 영국 국왕의 압정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 왜 영국 국왕으로 대표되는 영국정부로부터 벗어나려 하는지를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써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제 식민지는 자유롭게 독립된 국가이며, 또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게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후략).”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바란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천명돼 있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

을 펼쳐지고 있다.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공은 스티븐 앤드류 목사로, 미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견고히 하고 건국의 아버지들을 기억하는 국가적인 '언약의 기도'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앤드류 목사는 “미국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3-0200(대 표) (323)665-0009(광고국)
Fax:(213)380-5951(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2011 Fall Semester
신·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2011년 8월22일~12월2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thletic Mission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Christian Leadership
--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원격 교육 강의 :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혹은 J-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한국의 경기도 안양소재의 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인
조성근목사가 LA에서 기도성회를 인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미주 갈멜산 기도성회

강사_ **조성근목사**

-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담임
-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 GST대표
- KWMA 운영이사
- 홍신대학교(Th.M/Th.D.cand)
- 미국 ORU(D.Min)

일시 1차 6월 28일(화) ~ 7월 2일(토)
2차 7월 4일(월) ~ 7월 7일(목)
매일 오후 7시 부터 9시
* 주일은 기도성회를 하지 않습니다.

장소 3407 W 6th St. Suite 800
Los Angeles CA 90020(로얄빌딩)
집회문의(213)514-0039

주최 갈멜산금식기도원
www.galmelsan.or.kr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어
복음
전도
신문
입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뉴욕 주 동성결혼 합법화...미 역사전복

(1면에서 계속)

쿠오모의 설득으로 그는 수주 전 동성애 법안 운동 단체에 수십만 달러의 기부를 하게 됐다. 평소 그와 가깝게 지내던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미 언론은 분석한다. 현재 뉴욕 주에서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축하 파티는 물론, 레이디 가가, 린지 로한, 알렉 볼드윈 등 유명 연예계 인사들까지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자축하는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며, 주 의원들에 의해서 이 같은 사안이 결정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뉴욕 시민 전체의 의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종교계 역시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뉴욕 주 가톨릭 주교들은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는 인류의 오랜 결혼에 대한 이해와 미국이 자리잡고 있는 토대를 전복시키는 결정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미 뉴욕에 앞서 코네티컷,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워싱턴DC가 동성 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규모나 정치적 의미에서 뉴욕은 다른 여타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크고, 또 법안이 통과된 과정 자체가 극적이었고 부를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쿠오모 주지사는 가톨릭 신자다. 주교, 신부, 목사 등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 적극 반대하는 와중에서 쿠오모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신념을 지켰다. "뉴욕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은 동등한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정치 철학이 이번 법안 통과 배경에 깔려 있다.

따라서 지난 24일, 결혼평등법 뉴욕 의회 통과 이후 로드아일랜드 주를 비롯한 미전역에서 동성결혼 합

법화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미전역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전쟁터가 되고 있다. 보수 진보 세력 간에 나태 전쟁 이후 최대의 이슈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동성애자 인권 단체들의 정



치력이 급상승했다. 5개의 동성애자 인권 단체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 1개로 통합하고 쿠오모 지사 측과 가까운 저명 고문을 영입했으며, 선거구 주민 수천 명의 서명을 받은 엽서를 주요 의원들에게 보냈다.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하는 월스트리트의 정치헌금 기부자들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이 가톨릭과 동성애 반대 단체 등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집단보다 표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공화당에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 뉴욕 지역 가톨릭교회의 리더인 티머시 둘란 대주교도 평등결혼법안 투표 날에 침묵을 지켰다. 둘란 대주교는 이날 시애틀에서 열린 주교회의에 참석해 뉴욕 주의 주도로 의사당이 있는 올버니에 오지 않았고 동성결혼에 대한 공개 연설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동성결혼 허용이 뉴욕 주에 주는 경제적 혜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2009년에 동성결혼이 뉴욕 주에서 합법화된다면, 적어도 3년 간 뉴욕주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약 2억1천만 달러를 상회할 거라고 전망했다(Would Gay Marriage Help the State Economy?).

물론 3년 동안 건강 보험료를 비롯한 6천9백만 달러 정도의 주 보조

금이 지출된다고 하지만 동성결혼을 통한 결혼식 비용, 결혼관련 사업들의 매출 증대, 동성커플로 인한 납세금까지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경제 불황기에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뉴욕타임스는 동성결혼을 "인류의 문화적인 영역에서 도덕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법문화시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동성결혼 허용 무드로 "오피니언"을 내보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를 동성결혼 허용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덕이나 신앙보다 우선이라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동성결혼 논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동성결혼 논쟁 전망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뒤바뀌게 된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는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승부가 여러 번 엇갈렸다.

최근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총의를 모은 '주민발의안 8호'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해석에 분노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민발의안 8호는 동성 커플인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 보호와 공평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동성결혼 반대 진영의 불복으로 항소심으로 넘겨져 법적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따라서 뉴욕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종교계와 주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을 통해 뉴욕 주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결국 차기 대선에서 동성결혼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게 된다.

결론으로,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실패는 50개 주가 모두 다르다. 미국인에게 동성결혼 문제는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갈등 이슈이기 때문이다. 경로는 다르지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는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등 5개 주다. 올 초 워싱턴DC가 이들 5개 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흐름에 동참했고 여기에 뉴욕 주까지 가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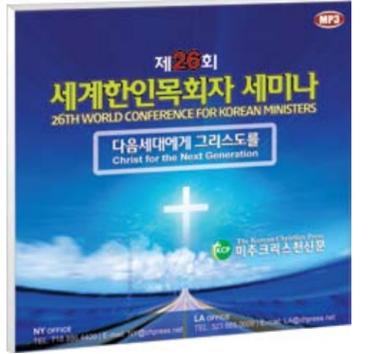
동성결혼은 금지됐지만 동성 커플을 '시민 결합'(civil union)으로 보거나 '파트너' 형태로 간주해서 법적 부부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하는 주들도 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위스콘신, 메인,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하와이 주 등이다.

미국의 부부들은 사회보장과 세금, 의료보험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동성애자들이 부부가 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면에는 이런 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은 이미 가시화된 미국 차기 대선후보자들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사 고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CD(MP3)로 나왔다.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목회자, 평신도 각각)과 3회의 저녁여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 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여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성, 김만형, 김상덕, 조일규, 홍민기, 송규식, 김해천, 박헌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의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2면에서 계속)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인 존 애덤스는 "7월 4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동의 헌신을 통해 해방된 날로 기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는 교회들은 회중 기도문과 전단, 게시물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USA Christian Ministries), 예배자들은 이날 주일예배 이후 이 자료들을 집으로 가져가 책상 위에 놓거나 냉장고에 넣어 놓고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No King but King Jesus"라는 문장이 쓰인 작은 포스터도 제

공되는데, 이 문장은 미국 (독립)혁명의 모토이자 시편 47편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앤드류 목사는 "우리는 7월 3일 주일에 교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을 비롯해 티파티, 홈스쿨, 프로라이프 그룹 등 나라를 생각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7월 4일 언약 기도문을 함께 나누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경제위기로 부터 보호하심을 포함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언약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Father, As Your Christian nation, we affirm our covenant: You, the LORD, are the God of the USA and we are Your people. Jesus is our King. We obey what You say in the Holy Bible. We love You with all 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We love one another as Jesus loved us. We ask You to forgive our sins by Jesus' sacrifice.

In Jesus' name. Amen. (Psalm 33:12, Mark 12:30, John 13:34, 2 Chronicles 15:12)"

(1면에서 계속)

ITCS는 캄보디아의 국내적 상황에만 적합한 복음 전파의 예비 신학생들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복음화의 요람으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1) 성경적 훈련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헌신된 선교사들 그리고 탁월한 신학자들이 될 인재들을 다듬어나가며 2)교회와 신학교의 산학협동이란 차원에서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수단들을 제공해주며 3)어떠한 다른 가르침이나 현대 신학 사조들과 타협하지 않는 성경/개혁적 신학으로 예비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구비시키려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ITCS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가르치는 교수진이나 학생들이 다국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현재 32명의 학부생들, 12명의 신학생 그리고 120명의 목회학과 학생들은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에서 왔고, 교수진 역시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초빙됐기에 다인종, 다문화적 상황이라는 동아시아 선교의 요람이자 전초기지로서 그 임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ITCS는 이번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12명의 신학생들 중 6명이 졸업해 목회 현장이나 선교 전선 그리

고 신학적 훈련을 더 연마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선교지향적인 마인드로 먼저 교회공동체나 선교 단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지구촌을 복음화 하는 향후 선교의 주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ICTS가 제공하고 있는 과정들은 △대학과정(B.B.S(4년)과 △대학원 MAR(2-3년) △M. Div.(3-4년) △Th. M.(1-2년) 그리고 인턴십 코스 △목회자교육(Certificate of Pastoral Education, 12주 3년)이 있다.

웹사이트: itscambodia.com

2011 부흥성회

주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자 김인중 목사를 모시고 천국 잔치를 갖고자 하오니 오셔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장년 일만삼천명, 주일 학생 오천오백 여명이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며, 계속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인중 목사
안산동산교회 담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졸업
총신대학원 졸업
안상고등학교 이사장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총재

- 날짜: 2011년 7월 8일(금) - 10일(주일)
- 시간: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 20분
주일 낮 12시, 오후 5시
- 장소: **뉴욕 주신장로교회당**
- 주소: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 E-mail : jooshinchurch@gmail.com
- 전화 : 718-310-7061-2, 718-377-3535

목회자 세미나

일시: 2011년 7월 11일(월요일) 오후 7시
장소: 금강산 식당
주제: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주최: 대뉴욕지구목사회

예수교장로회 뉴욕주신장로교회
김용익 목사 외 성도 일동

(2면에서 계속)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생명의 시간”

혈액 두 방울로 인간의 생명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광고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미국 유일의 상업적 병리 검사 기관인 ‘스펙트라셀’은 텔로미어 분석 서비스를 통해 인간 세포의 생물학적 나이를 혈액 두 방울과 비용 290달러를 보내면 인간의 생명 시간을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텔로미어란 유전 정보를 담고 있

는 염색체 가닥의 양쪽 끝에 붙어 있는 꼬리입니다. 체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 그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게 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혈액내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해 세포의 연령, 노화의 정도를 판별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텔로미어가 짧은 노인 과 긴 노인을 연구 실험한 결과 텔

로미어가 짧은 노인은 긴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거의 두 배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흥미를 갖고 텔로미어 연구로 2009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인물인 UC 샌프란시스코의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최근 ‘텔로 헬스’를 공동 설립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블랙번과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개럴 그라이더 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텔로미어가 가장 짧은 1%사람들은 골수 질환, 폐섬유증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단순히 텔로미어 길이로 인간의 생명을 알 수 있다는 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 DNA샘플을 낸다 해도 당사자의 나이를 판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강하게 지지하며 미국 과학 및 건강 위원회에 서도 ‘수명 예측은 돌팔이 같은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알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매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만약 삶의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회개를 하고 천국을 가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 삶의 시간이 길다면 게으름을 피우고 내일하지 아니 다음에 하지 미루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안다는 것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순간을 아는 인간의 심정을 그린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28세 때 내란음모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일입니다. 영하 50도가 되는 추운 겨울날 형장에 끌려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 시간을 기다리며 시계를 보니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5분 남아 있었습니

다. 28년을 살아왔지만 단 5분이 천금 같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장에 함께 끌려온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는 데 2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분은 이 시간까지 발붙이고 있던 땅과 자연을 둘러보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보내고 삶을 정리하느니 문득 3분 뒤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을 정말 값지게 살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그를 억눌렀습니다. 후회와 특사령(特赦令)을 가진 병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고 시베리아에서의 유형 생활을 통해 “죄와 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는 작

품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 죽음의 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가엘이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지상에서 구두직공이 되어 일을 했습니다. 미가엘은 일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천사인 줄 모르는 이 구두직공에게 “한 일 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구두를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엘이 보니 그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일 년 동안 신을 구두를 주문하는 것을 본 미가엘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이 죽음의 날짜를 아는 것임을 알고 엿게 웃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순간을 안다면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푸/ 른/ 초/ 장

지운성 목사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스코틀랜드의 ‘제이나라’는 학자는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기쁨의 이유를 물으면 “기쁨이라는 것은 것발과 같습니다. 성에 것발이 꽃혀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에 기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주님만 모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러기에 신앙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솟아나야 하고, 그 기쁨을 감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기쁨을 보여주고, 날마다 노래해야 한다.

바울선생은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한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다.

그것도 모자라 바울은 거듭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다.

바울은 기쁨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하며,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 우리

성도의 얼굴이 어둡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세상이 살기 어려워져서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주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위기다.

어느 시대나 어려운 일은 있었

다. 오늘날만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위기는 경제문제, 불경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이다.

여러분, 불경기 가운데서도 금용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끄떡하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주안에서 서 있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환경과 관계없이 기쁘고 평안한 것이다. 주안에 굳건히 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둘째, 주님을 모시고 살면 기뻐할 수 있다.

4절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의 ‘주안에서’ 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라는 말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 “주여 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행복할 수 있다. 즐거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환경을 이겨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란다.

셋째,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관용의 삶이라고 한다.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모실 뿐 아니라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베풀 관용의 대상은 누구인가?

첫째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

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갈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되 특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더욱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보다 먼저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임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손해 보는 듯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양보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조금은 어수룩하게 사는 것도 삶의 지혜다. 너무 빈틈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다. 조금은 어리숙하게 살아가면 주위에 사람들도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관용을 베풀 때 큰 관용도 베풀게 된다.

성도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만이 불행의 시대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 바란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날마다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첫째,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기쁨이 유지됩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서 있는 것(stand firm)은 세상의 어떤 유혹,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다. 오늘날만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위기는 경제문제, 불경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이다.

여러분, 불경기 가운데서도 금용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끄떡하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환경과 소유에서 온다. 불안정한 기쁨이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님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다. 주님을 모신 성도가 항상 기쁜 것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와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기뻐한다고 고백했다.

함3: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첫째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

이 책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바람직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가를 여러 시각에서 조명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합된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박수를 보냅니다. 누구나 교회에서 충분히 훈련받은 모범 평신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반홍일: 장로, 한국/세계직장선교회 창설회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해도 생명의 길이기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김용길: 삼산교회 수석장로

삶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의 신앙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김주영: 장로, 공학박사, Dr. Jay Kim Academy 원장

앓은 자리에서 밤새워 통독했습니다.

유수열: 전 MBC PD

무시야, 예수 믿는다?

어떤 인간머리가 되거나 두고 보자

저자_이정근

서울시대 및 대학원, 서울신학대학교, 애즈베리/웨스턴폴러/삼척레퍼/블레이몬드 등의 신학대학원에서 수학, 문학사, 교육학 석사, 문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학위 취득.

현재 유니온교회 청빙원로 목사, 미주성경대학교 명예총장, 원수사랑재단 대표.

미주성경교단 총회장, 세계한기독인본인협의회 총회장,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아주사범사신학대학원 강사, 풀러신학대학원 강사, 웰드미션대학교 대학원장, 미주성경대학교 총대총장 등 역임.

저서: 조각칼집 14권, (기독교교육신학연구논문집 3권 등

이정근 목사 저서 안내

신양 명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288면 / 10,000원	하나님은 이만국 에도 계시다 288면 / 10,000원	그래도 소망은 있다 288면 / 10,000원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씨앗이로 296면 / 10,000원	진짜 예수, 우짜 예수 304면 / 10,000원	집투심은 늘지도 않아요 304면 / 10,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coolran.co.kr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전화 (02)747-1004

쿨란출판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문자 그대로 진리인가? 라는 질문에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47.8%, 흑인기독교인은 40.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주류 기독교인은 11%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주류 기독교인 22%는 "성경은 고대 역사와 전설을 담은 책"이라고 답했다.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조금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통계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결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어주셨다(창2장).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또 다른 아담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시켜주셨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나? 예수님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셨다(마19:4; 막10:6).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앞에 주신 근본이 되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결혼의 의미를 재확인시켜 주셨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하다. 살인, 간음, 유괴, 거짓말,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죄라고 하신다. 동성애자

sodomy를 사용했다. 더구나 레위기 18:22와 20:13의 말씀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직접적인 금지이다. 동성애에 죄를 짓는 사람은 다 가증한 일이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규정하신다.

신약성경도 동성애에 대해 한 가지로 말씀하신다. 롬1:26-27은 여자가 여자를 혹은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불일듯하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이고, 역리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상당한 보응을 받는 일이라고 하셨다. 또한 고전6:9-10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남색은 불의한 자가 되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딤후1:9-10에서도 남색하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죄로 지적하신다. 동성애는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이다.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하여 동성애 옹호자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처럼 말한다. 그렇지 않다. 바울 뿐 아니라 유다서 1:7의 말씀도 동성애에 대한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연결하여 증거하는 직접적인 말씀들이다. 바울의 증거는 동성애가 행해지는 당시의 시대를 향해서 증거한 선지자적인 메시지이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분명한 말씀

마침내 뉴욕주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었다. 지난 6월 24일 공화당이 다수당인 뉴욕주 상원에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3, 반대 29로 가결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는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워싱턴DC에 이어 뉴욕으로 늘어났다. 6월 14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로는 미국에서 자녀를 입양해 키우는 동성커플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또한 LA캘리포니아대(UCLA) 윌리엄스 연구소의 게리 게이츠 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는 동성커플 중 입양한 커플의 비중은 지난 2000년 8%에서 2009년 19%로 급증했다.

이러한 동성애 합법화 시대로 변화는 예고돼 있었다. 사회적인 변화는 교회 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

성애 지지자들은 범주계의 재판의 판례들을 쌓아오면서 사법계를 통해서 동성애의 합법화의 문을 열려고 노력해왔다. 다수가 아니지만 소수의 큰 목소리를 통해서 사회를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여러 인권문제들, 즉 흑인 인권문제, 여성인권문제 등을 합법화했던 과정과 똑같이 밟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 입법화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동성애 합법화시대는 갈수록 더 힘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흐름은 어떠한가? 현재 동성애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세다. 갤럽이 2010년 5월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답한 사람은 52%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답한 사람은 43%였다. 1년 전 각각 49%, 47%였던



동성애 합법화 시대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니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에 더 앞장 서는 것 같다. 세상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교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닐 뿐 더러 동성애자를 교회의 리더들로 세우는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장로교 PCUSA는 지난 5월 10일 제219차 총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 간 결합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교단헌법을 수정했다. 지난 20여년의 논란 끝에 성경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동성애자 목사, 장로, 집사가 될 수 있도록 교단헌법을 수정했다. 이러한 PCUSA의 결정은 The United Church of Christ,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성공회(The Episcopal Church) 등에 이은 결정이다. 모두 주류교단들(mainline denominations)이다.

지금까지는 동성애자들이 숨어 들어와서 목사로서 안수받고 목회하다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고백함으로써 여러 교단들에서 이슈가 되게 했었다. 그동안 동

성을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PCUSA의 이번 결정은 미국문화의 변화를 보여준 듯 반해서 교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닐 뿐 더러 동성애자를 교회의 리더들로 세우는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 반대는 복음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다. 다른 종교들도 동성애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모두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나 안수의 문제는 무엇인가? 동성애의 합법화는 흑인 인권문제나, 여성 인권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동성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같은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흑인들이나, 여성들에게 차별화 해온 것처럼 동성애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런 것은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교단들에서 먼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터 리서치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복음주의의 기독교인은 26.3%, 주류기독교인은 18.1%, 흑인기독교인 6.9%이다. 미국 베일러대학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성경의 무오설, 성경이

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과 우상 숭배를 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동성애자들과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교계를 두 가지의 전쟁터로 유도한다. 먼저 일부는 성경은 동성애를 눈감아주고 묵과하며 심지어는 장려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미움의 문서(Hate Literature)'로 규정해서 성경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지 못하도록 공공의 사용 금지하도록 시도한다. 양 동적전이다.

성경이 동성애를 장려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교훈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역시 동성애와 연관이 있음을 직접 간접으로 말씀하신다(창19:5-8; 유1:7).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은 이방인들이나 방랑자들을 진절히 대하라는 의미로 축소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신약의 단어는 sodomite이라는 단어이고, 사람들은 과거 5천년동안이나 동성애와 관련된 단어로

이다.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의미를 고대사회의 특수한 경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축소하고 왜곡해 해석하거나 단어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주장한다. 성경의 동성애에 대한 말씀들은 동성애에 대한 열정과 행동은 비자연적이고 부끄럽고 말쑥에 위배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셨다. 그래서 동성애가 가증의 기본 원리가 될 수 없음을 증거한다.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주님은 죄인과 죄를 구별하여 주셨다. 주님은 사람 때문에 죄를 받아주신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죄는 뿌리째 뽑으시지만 죄인은 받아주셨다. 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두 팔로 안아 주셨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받아서 새 인생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셨다. 하지만 죄를 버리라 하셨다. 예수님은 사색이와 그의 친구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았다.

<15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남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지금 교회들마다 여름 단기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6명의 청년단기 선교팀이 여러 곳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날의 이민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이민교회들의 선교전략을 세우는 것은 교회마다 목회자의 선교 방향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동안 30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국내외 선교의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지금 여름 방학시즌에는 대학생 청년을 위시하여 1세대의 단기 선교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여름방학 때는 단기선교로 거의 5-10만명이 해외로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민의 특수 현실 속에서 이민교회들의 선교전략을 세우는 것은 교회마다 목회자의 선교 방향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동안 30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국내외 선교의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이민교회의 첫 번째 선교지는 우리의 자녀들인 2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민 2세대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 한인교회에 나오지만 20세가 넘어 부모 곁을 떠나면 교회를 잘 안다닙니다. 이들은 2중 문화권속에서 방황하고 2세의 바른 지도자들이 적으므로 교회 안에서도 잘 지도를

자녀가 제1의 선교대상... 도시, 전문인, 실버, 미전도

받지 못함으로 거기가 버려진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교회의 첫 번째 미션 필드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물질적 인적 자원을 집중적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국 교회가 과거에 해외선교에 주력한다고 힘쓰다 교회 자녀교육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후대의 교회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2. 도시 선교가 이민교회의 국내선교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 50%가 도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0%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전략은 주로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교회 등입니다. 대 도시는 혈연 중심의 농촌과는 달리 자유 개방적이고 개인주의며 외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대한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도시를 점령하면 그 옆에 있는 농촌은 저절로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부와 세계의 중심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는 세계의 관문도시이며 모든 다 민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먼저는 한인들과 다민족들을 대상으로 전도 및 선교를 해야 합니다.

3. 실버 미션 및 전문인 선교입니다. 이민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은퇴를 하면 1년 이상을 선교지로 나가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실버 선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자원 봉사자로서 돕는 것도 좋습니다. 이슬람권에는 목사들이 자유롭게 가기가 힘듭니다.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전문인들이 직업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란노서원에서 나온 인기있는 책 '레디칼'(Radical)이란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이란 사람도 레디칼 시험을 하는데 1)지도를 펴놓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2)성경을 전체적으로 꾸준히 읽고 3)의미있는 곳에 재정을 희생적으로 드리고 4)필요로 하는 곳에 1년간 가서 봉사하라.

<15면으로 계속>

24시간 영업

뉴욕고향 스타벅기

New York Kom Tang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24시간 오픈

맨하탄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뒤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배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태권도, 검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sworld.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Yoo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총재 왕의 영 목사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기독교 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FOR THE MOVEMENT

<월간> 미주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nloveny@yahoo.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들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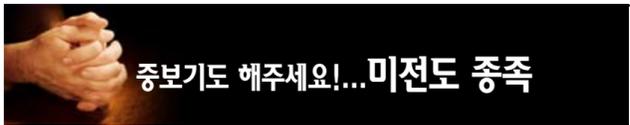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66
E mail :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산시브힐(SANSI BHIL)



(Bhil) 종족에 속하며 그들의 언어인 산시어(SANSI)는 인도-아리안 어족에 속한다. 이들은 대개 두 개의

산시 브힐족(SANSI BHIL)은 파키스탄 신드주의 북서쪽 시골 지방에 거주한다. 이들은 브힐(Bhil) 종족에 속하며 그들의 언어인 산시어(SANSI)는 인도-아리안 어족에 속한다. 이들은 대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 하나는 산시어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속한 지역어로 신드어나 우르두어 혹은 펀잡어이다. 이들의 역사는 1500년대와 1700년대 사이에 일어난 무굴(MUGHAL) 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산시인들이 전쟁에서 그들의 영토를 잃고 나서 인도의 북쪽을 배회하면서 유랑민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힌두교인들과 무슬림 간에 계속되는 충돌로 인해 1947년 파키스

탄이라는 독립된 이슬람국가가 탄생했다. 그 분리의 시기에 산시인들은 동부 펀잡 지역의 다른 무슬림들을 따라서 파키스탄으로 이주했다. 거기에서 이들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고 끼니를 위해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해 몇몇은 도둑질을 하거나 소를 훔쳐서 범죄자 카스트(CRIMINAL CASTE)가 되기도 했다.

삶의 모습
산시인들은 부유한 파키스탄 지주를 위해 소떼를 몰거나 밭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다. 파키스탄 전국 시에 산시인들을 위한 토지는 제공되지 않았다. 지주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을 노예로 착취하다 마지못해 해방시켜준 노예들이 많다. 이것은 파키스탄 내 주요한 분쟁거리가 되

고 있다. 낮은 지위의 힌두 카스트 산시인들은 가족을 부양할 여분의 수입을 벌기 위해 계절을 따라 이주한다. 밀과 옥수수가 주된 작물이며 쌀, 목화, 기장도 생산한다. 산시인들은 숙련공이나 비숙련공으로 공장 혹은 제재소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산시인들은 대가족으로 살았으나 핵가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몇몇 산시 마을은 매우 작아서 대가족 하나 혹은 둘만으로 마을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산시인들은 부자가 거의 없고 전통적인 회칠한 집은 비좁고 더럽다. 힌두교도인 산시인들에게 있어서 브라만(BRAHMANS; 힌두 제사장과 학자)은 가장 높은 계급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산시인들이 소속되는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

급이다. 힌두 산시 사회는 족장 중심의 씨족사회로 구분된다. 아버지가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시인들의 교육과 건강, 식사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양질의 물도 부족하며 많은 산시인들이 알코올중독자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구전설화를 통해 대대로 이어지는 풍부한 민속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앙
많은 산시인들이 1947년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주하면서 빠르게 무슬림이 됐다. 다른 나머지는 미신, 예언, 공포와 같은 그들의 힌두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힌두교인들은 모든 생물, 무생물들이 영혼의 거처가 된다고 믿는다. 이들은 갑자기 죽은 사람의 영혼과 시김함으로써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악령의 눈'(EVIL EYE)을 매우 두려워한다.

필요한 것들
산시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서로서 이들은 가치 있게 대우받아야 하며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시인들에게 내적인 치유를 베푸실 수 있고 이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필요로 하였던 안정과 보호를 베풀 수 있다.

산시어로 된 성경, 기독교 자료들이 거의 없다. "예수" 영화와 기독교방송도 산시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1500년 전 비잔틴 시대의 공공건물 첫 발견



아코 연구 역사상 처음으로 비잔틴 시대의 공공건물이 아코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500년 전 교회로 추정되는 이 공공건물은 텔 아코 서쪽으로 100미터 정도에 위치한 아즈리엘리 쇼핑몰 옆 공사 현장 아래에서 이스라엘 문화재청(IAA)이 진행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됐다.

IAA를 대표하는 발굴 책임자 누리트 페이그는 "현재까지 아코는 새로운 종교(기독교)의 공식화에 참여했던 아코의 주교가 언급된 기독교 자료에 잘 알려져 있었다. 이제 분명히 실재하는 증거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발굴됐다. 지금까지 해안 부근의 주거지역에서 나온 유물 외에는 비잔틴 시대의 유적이 발굴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발굴은 아코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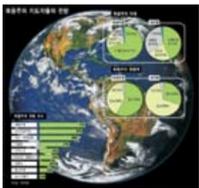
공공건물 표면의 큰 돌이 IAA발굴에서 발견됐다. 이 건물의 크기, 인상적인 구조, 많은 지붕 타일, 부분적인 대리석 장식, 도자기와 주화 등의 발굴품을 보아 비잔틴 시대 당시 아코의 주교가 예배를 드린 공공건물(교회)로 추정된다. 점토로 구워 만든 테라코타 파이프는 벽 아래에 남아 있었고, 같은 층의 방들 중 하나에는 모자이크 바닥이 깔려 있었다. 또 이 건물의 거주자들은 건물의 뜰에 있는 우물에서 손쉽게 물을 얻을 수 있었다.

초기 기독교 자료에는 종교 교리를 공식화하기 위해 열린 주요 국제 회담과 회의에 참가한 아코와 가이사라 주교가 언급돼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 기독교 종교에서 아코의 중심적 역할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AD 570년에 이탈리아의 피아첸차 출신 의명인 순례자가 이 도시의 부유함과 화려함, 또 아름다운 교회를 묘사한 증거도 남아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비잔틴 시대 유적이 적은데 이는 그 이후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 시대로 추정되는 초기 건물에 비잔틴 공공건물 아래에서 발견됐으며, 그 곳에서 로도스 섬 관리인의 이름이 새겨진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도자기를 포함하여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 수입한 도자기 그릇 등 풍부하고 다양한 발굴물이 나왔다.

"복음주의 阿亞·남미 서양이고 북미·유럽 서서할것"



세계 복음주의의 영향력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감소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음주의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속주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퓨포럼은 최근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남미 등 비서구권은 복음주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지만 유럽과 북미, 호주 등 서구권은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향후 5년간 비서구권에서 복음주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과 같다'(14%), '나빠질 것'(12%) 순으로 답했다. 반면 서구권은 응답자 44%만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금과 같다'는 21%, '더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은 33%에 달했다.

국가별 복음주의 영향력도 차이를 드러냈다. 비서구권 출신 지도자 58%는 자신의 나라에서 복음주의 기독교가 계속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답했지만 서구권 출신 66%는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은 비관주의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82%는 "오늘날 미국에서 복음주의가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미국 기독교가 점차 쇠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로잔복음화운동 더그 버드셀 총재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비관론은 변화된 미국 문화에 기인한다"며 "한 세대 이전만 해도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지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했다.

설문조사는 현대 기독교를 위협하는 요소에도 언급됐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요소는 타종교의 성

장이나 기독교 내부의 불일치가 아니었다. 세계관과 문화가 문제였다. 응답자(복수응답) 71%는 세속주의를 가장 큰 도전으로 꼽았다. 이어 소비지상주의(67%), 섹스와 폭력 문화(59%), 이슬람(47%), 신학적 노선(30%), 호화로운 생활방식(30%), 성윤리(26%), 종교박해(22%), 로마가톨릭(10%) 순이었다.

한편 복음주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98%), '기독교는 영생으로 이끄는 유일한 신앙 체계'(96%),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84%) 등으로 답했다. 90%의 응답자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부와 물질 추구라는 번영신학을 반대했으며, 92%는 오순절 신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설문은 3차 로잔대회 참석자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퓨포럼은 이 가운데 166개국, 2196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했다.

뇌졸중 겪은 캠퍼 목사, 결국 열린 포럼 중단



'최후 심판날'을 예언했다가 실제로 끝나면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켰던 해롤드 캠퍼(89)이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패밀리 라디오의 오픈 포럼 프로그램을 그만둔다. 패밀리 라디오의 대표이자 소수주인 캠퍼는 오픈 포럼을 통해 평일 저녁 90분간 청취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을 성경을 근거로 설득해왔다.

그가 지난 9월 가벼운 뇌졸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뒤 패밀리 라디오측은 녹음된 분량을 방송해왔지만, 이번 달 말에 이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도한 오를랜드 트리뷴측에 이메일로 답한 패밀리 라디오 프로그램 부분 담당 주디 라스본 씨는 "오픈 포럼 중단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이 시간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롤드 캠퍼는 현재 캘리포니아 오를랜드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패밀리 라디오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다. 공지에는 "캠퍼 씨 부부는 많은 이들이 보내온 격려의 카드와 편지, 꽃 등을 기쁘게 받았

으며 기도와 염려를 감사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다"고 덧붙였다.

그가 예언했던 5월 21일 최후의 날이 실제로 드러난 이후에도 캠퍼는 자신의 예언이 전반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으며, 5월 21일을 '육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잘못이지만 '영적으로'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후 심판날을 10월 21일로 반복함으로써 반쪽을 샀다. 5월 21일 이후 오픈 포럼에는 그의 잘못된 예언과 사죄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 청취자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으며, 전화를 건 이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패밀리 라디오는 미전역에 100개의 방송국이 있으며, 아프리카 사하라 일부 지역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대상 CGN TV 아랍어 방송



CGN TV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위해 아랍어 방송을 시작했다. 아랍 교회 신자와 무슬림을 위해 시작된 방송은 건강한 신학과 복음주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핵심이다. 설교 위주로 편성돼 국내 목회자와 아랍 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중심이 된다. CGN TV는 본격 방송에 앞서 지난 6월부터 하루 1시간씩 방송하고 있다.

현재 하용드(은누리교회) 목사의 '창세기 강해'가 아랍어 자막과 함께 방송 중이며 이집트 출신 히삼 카멜 목사의 '예수는 누구인가' 시리즈가 방송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조이스 마이어 콘퍼런스'도 방송된다. CGN TV는 연말까지 가용 콘텐츠를 발굴, 현지에서 직접 송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아랍어미리드연합 아부다비에 제작센터를 세워 방송물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랍권에는 모두 6개의 기독교 방송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위성방송이 많으며 아랍 교회 교인뿐 아니라 무슬림 시청자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무슬림이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있어 그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CGN TV는 이를 위해 아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 아랍권 대표 기독교 전문 위성방송인 SAT-7과도 제휴해 전략적 방송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 핸드폰발령기세요 702.812.4770 Kim Wray

눈, 코, 귀,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손에는 전화기가 있으니 만사해결!

임대료	국세	받는통화
\$3.00 a day	39¢	공짜!

가격은 인건공임의 50% 수준
고급 핸드폰 제공
장기 - 스페셜 할인
미국 어디나 무료 배달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 소	
전 화	팩스:
이메일	@
기 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성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Christ for the Next Generation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박재호 목사
브라질새소망교회 담임목사

교회헌금에 대해 바로 알고 행하라(1)

헌금의 비밀

(1)약한 가지에서 열매 열린다.
 (2)헌금은 축복의 씨앗이다.
 (3)축복을 마음껏 해야 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창14:19).
 (4)축복기도 받고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다. "너로 하여금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감사)하니 십일조를 열기세대에 바침"(창14:20).
 (5)헌금교육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봉투, 액수, 정성, 방법(마지막 기도, 마지막 헌금으로 교육). ■하나님은 제물이 있는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다. ■사람모이는 것에 우선하여 헌금부터(제물 드림부터)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 사람이 안 모일까봐 헌금 교육을 못하는데, 그것은 헌금 안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결국 축정이 신자만 모인다. 바람 따라 물러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받았다(고전4:7; 롬8:32).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즉 '몸'(롬12:1), '마음'(신6:5; 마15:8), '시간'(출20:8), '물질'(말3:8; 출23:15), '재능' 등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예배에 속한 것으로 중요한 것이며 성경은 특히 '물질봉헌'(헌금)을 권면하고 있다(마6:19-21; 막12:41; 말1:7-8).
 지상교회에는 물질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하다. 교회의 재정은 자동차의 기름과 같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외형이 거창한 교회라도 재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교회의 재정의 총당은 교인의 헌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인의 헌금(offering)은 대개 주일예배나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하여 바치게 된다. 구약의 헌금은 십일조와 헌물(말3:8; 창28:22; 출29:40; 레27:30)이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헌금은 초대교회로부터 비롯되었다. 처음

들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다(롬:10). 아브라함도 만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바쳤다.
 빌립보서 4장18절에 육중의 바울이 예바브로 디도편에 선교헌금을 받고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 온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고 했다.
 (2)헌금은 곧 물질로 드리는 예배이다(빌4:18).
 헌금이 곧 예배라 함은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와 목양(목회)과 구

제물은 사람의 노동과 지식과 재능을 통하여 얻은 노력의 결정(結晶)이며, 생명의 보증을 위한 자료이며, 생계에 유조(有功)한 방편임으로 헌금은 신자의 몸과 생활 전체를 봉헌하는 것이다.
 (4)헌금은 하나님의 발에 축복의 씨를 심음이다(고후9:6).
 농부가 밭에 파종함(씨뿌림)과 같이 헌금은 하나님의 발인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씨를 파종함이다(마13:24).
 (5)헌금은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마6:19-20).
 인간은 세상에 올 때 적신(赤身)으로 왔기에 돌아갈 때도 적신(赤身)으로 가게 되며(롬1:21) 평생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 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전5:15). 그러나 지상에서 미리 헌금을 하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눅12:33; 마6:19-21).
 (6)헌금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헌물이다(고후8:2-3).
 헌금은 마케도냐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성의껏 드리는 연보요, 헌물이다.
 (7)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기이다(대상29:14; 학2:8).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기쁨과 정성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

(2)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은 인정함(욥1:21; 학2:8).
 성경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했고(욥1:21),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했다(학2:8).
 (3)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대상29:14).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얼마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 할 수 없는 법이다(대상29:14; 벧전4:11). "누가 봉사(헌금)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벧전4:11)고 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된다.
 (4)주님이 원하시면 생명도 드려야 함.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요 구속주이시다. 그러므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면 생명도 드려야 한다(마22:37; 눅14:26; 요일3:16). 물질은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구차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처럼 자기의 쓸 것을 생각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곧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다(눅21:4).

하여 감사의 표시가 충분히 되도록 드려야 함.
 (6)힘에 지나도록 드려야 한다(고후8:2-3).
 (7)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고후9:7).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을 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야 함(창4:3-5)

4. 헌금의 영적 의미
 (1)사랑의 고백이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마:21).
 (2)축복의 기원이다.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다(벧4:19; 말3:10; 눅6:38).
 (3)믿음의 고백이다.
 헌금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시96:5-8; 학2:8) 그것을 맡아 가지고 있다가 내어드린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고전4:7).
 (4)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헌금할 것을 명령하셨고(신16:16) 성경이 언약을 명령하고 있다(고전16:1).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가늠한다.
 (5)신앙의 척도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물질봉헌은 그의 견경과 순종과 신앙의 좋은 검경(檢鏡)이 된다(막12:41-44; 눅21:1-4).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정도와 사랑을 측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눅7:36-47).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 속에 담긴 헌금자의 정성을 보신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얽은 두 푼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막12:41-44). 그 이유는 그가 구차한 중에 바친 두 푼의 헌금은 부자들이 바친 것에 비하여 액수는 작지만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를 바쳤고 가난한 과부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6)죄사함 받을의 반증이다.
 헌금은 죄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표시가 된다. 주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작게 느껴지는 사람은 작게 드린다(눅7:36-47).
 (7)헌금은 성도의 미행이다.
 복음사업이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이나 언보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미행(美行)이다(빌4:18).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낸 헌금을 받고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빌4:18).

3. 헌금의 자세

(1)미리 준비하여야 한다(고후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자 물질로 드리는 예배 미리 정성껏 준비해 감사하며 인색함 없이 즐겁게 드려야

는 단순히 성직자의 생활과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 헌금의 정의

(1)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
 (2)상한 심령의 제사(눈물로 드리는 예배), 시51:17 (3)순종 생활의 제사(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삼상15:22 (4)항상 찬미의 제사(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히13:15 (5)감사의 제사(감사로 드리는 예배), 시50:14-15, 23 (6)기도의 제사(기도로 드리는 예배), 시141:2 (7)물질의 제사(물질로 드리는 예배), 빌4:18 (8)헌신의 제사(몸으로 드리는 예배), 롬12:1 (9)사랑의 제사(사랑실천으로 드리는 제사), 막12:33 (10)첫 열매 제사(첫아들, 첫 열매, 첫수입,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도 받아

제 및 교회 운영을 위해 드리는 헌금은 봉헌자의 맘과 눈물과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신앙과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다(출23:15; 신16:16-17).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기 위해 헌금을 요구하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헌금을 명하신 것이다(말3:10; 고후9:6).
 (1)헌금은 만유의 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의 헌물(獻物)이다(잠3:9-10).
 (2)헌금은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다(눅7:36-50).
 (3)헌금은 인간의 노동과 지식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시128; 신8:18).

니이다"고 하였다(대상2:14).

2. 헌금의 정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셔서 물질을 요구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헌물이요, 예물이다. 예물이라 함은 헌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뜻이며 헌물이라 함은 헌금이 봉헌자가 자기희생(犧牲)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정신으로 해야 한다.

(1)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어드림(마21:2-3).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어드리는 것이다(욥1:21; 마21:2-3).

9:5).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성의있게 해야 한다. 아무 준비 없이 헌금시간에 즉석에서 호주머니를 뒤져 한두 푼 잡히는 것을 헌금함에 넣는 것은 성의가 없다.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며 헌물이다. 하나님은 준비된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마2:11; 히11:4).
 (2)정성껏 드려야 한다(시96:8).
 헌금은 타의에 의하거나 체면치레하기 위해 드리지 말고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한다.
 (3)인색함이 없어야 한다(고후9:7).
 (4)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고후9:11).
 (5)분복을 따라 드려야 한다(신16:16).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에 대

(다음주에 계속)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할렐루야백화점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로 바꾸시렵니까?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보급처
성서보급회
(할렐루야백화점부설)

멀티프로젝터

Product	LIST	HM PRICE
2300 ANSI LUMENS 2000:1	\$1,095.00	\$699.99
2600 ANSI LUMENS 2200:1	\$1,295.00	\$899.99
3000 ANSI LUMENS 2000:1	\$1,795.00	\$1,199.99
3300 ANSI LUMENS 600:1	\$3,195.00	\$2,399.99
5200 ANSI LUMENS 1200:1	\$6,995.00	\$5,299.00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목회와 신학, 성경/전승기,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약학,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니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기운, 성가대 기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샤프 2600 ANSI LUMENS **밝기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회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언급위면, 드레스, 정장양복

미중동부 기사 획득! 특별세일!

첼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불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최후 60마이크 획득! 한국디자인 진흥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납품업체 선정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 성구사 크리스탈 성구사가 있습니다.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음향, 영상, 조명 (213)447-4011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1. 빙하시대 이후(3) : 낙타와 라마

사막의 배라고 불리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낙타는 등에 혹이 있어 아주 흥미를 끄는 동물이다. 그런데 낙타라고 해도 모양이 다 같지가 않다. 혹이 2개인 낙타도 있고 혹이 1개인 낙타도 있다. 이 낙타들은 서로 다른 종(species)으로 분류되는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사육하는 혹이 한 개인 낙타를 단봉낙타(C.dromedaries), 동북아시아에 야생으로도 서식하는 혹이 2개인 낙타를 쌍봉낙타(C.bactrianus)라 부른다. 이 두 종은 모두 다 낙타 속(genus)과 같은 낙타 과(family)에 속해 있다.

그런데 등에 낙타의 상징인 혹이 없어 전혀 낙타 같지 않은 동물들이 낙타과에 속해 있는데 남미에 살고 있는 라마(Llama), 알파카(Alpaca), (Vicuna) 등 4종이다. 이 4종의 동물들을 통칭해서 라마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혹이 없고 크기가 작은 것만 빼고 아주 낙타와 닮은 동물들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종이라면 서로 자연교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 1998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낙타 생식 연구소에서 인공수정 방식으로 단봉낙타와 라마간의 종간 잡종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태어난 잡종은 Camel과 Llama를 교배했다고 해서 Cama라고 부르는데 처음 태어난 수컷 cama의 이름을 Rama(이슬람의 Ramadan에서 따옴)라고 지었다.

이 Rama는 알뜰 라마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자연교배에 의해 자손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새 같은 종간 잡종은 염색체의 수가 63으로 말(64)과 당나귀(62)와 염색체 수가 같지 않아 불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Cama의 경우는 낙타나 라마의 염색체 수와 동일하게 74개로 같은 수이기 때문이다(예전에는 낙타의 염색체 수가 70개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데이터는 74개로 보고 된다).

진화론과 낙타

이 실험을 한 Skidmore 박사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000만 년 전에 분리된 두 종의 낙

타가 인공수정으로 합쳐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진화론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야생 라마와 단봉낙타가 1,100만 년 전에 한 종에서 분화되어 계속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진화론적인 설명은 4,500만 년 전 북아메리카에 살던 낙타가 180만 년 전, 빙하시대에 베링해가 육지로 드러났을 때 아시아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 진화론적인 설명들은 서로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증거 화석들도 거의 없다.

그런데 미국 고등학교의 생물 교과서들 중에는 말의 진화과정을 빼고 낙타의 진화과정으로 대체한 교과서들이 있다. 그 이유는 이 말의 진화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신 구대륙 낙타, 모습 크기 차이 불구 염색체 74개로 한 종류 교과서에 진화증거불충분 말 대신 낙타 삽입...되레 창조 지지



평 대신 뿔?
말 대신 등장한 낙타의 진화 과정도...

교과서에 남겨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말의 진화과정은 몸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발가락은 5개에서 계속 줄어들어 마침내 굽이 한 개인 커다란 현재의 말로 진화되었다는 상상이었다. 말 진화과정을 뺀 진화론자들은 증거도 불충분한 낙타의 진화과정을 교과서에 집어넣었다(그림 출처: Biggs, A. et al., Biology: The Dynamics of Life(Florida Edition), Glencoe/McGraw Hill, New York, 2006. Table 15.1).

이 그림에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지 이해하는데 화석이 사용된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낙타의 진화를 설명할만한 특징을 보여주는 뼈는 제시하지도 않았고, 화석에는 존재하지

도 없는 혹과 줄무늬 등을 넣은 진화론적인 그림이 마치 증거인 것처럼 교묘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속적인 연대로 350만 년 전의 낙타 화석과 현재 낙타와는 크기 외에 이렇다 할 변화도 없어 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를 지지하고 있다.

성경과 과학을 통해 본 낙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낙타를 본다면 어떤 설명이 나올까? 종류대로 창조된 낙타가 암수 한 마리씩 단 2마리가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홍수 결과 따뜻했던 바닷물의 영향으로 세상이 더디서나 낙타들이 번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지난 칼럼들에서 소개 한 습윤사막 시대로 아프리카나 중동 등 현재 낙타들이 살고 있는 곳도 숲이 우거졌거나 풍성한 초원지대였다.

그 후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빙하시대가 왔고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한 대륙으로 붙었을 때 낙타들 중 일부가 아메리카로 옮겨갔다. 빙하시대가 지나자 기후는 급변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동물들은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멸종되어 갔다. 그러나 낙타들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가진 낙타들만 사막 지역에 적응하며 살아남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등에 지방 덩어리 혹을 가지고 있는 낙타였을 것이다. 그러나 남미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여 살게 된 낙타들인 라마류들은 혹을 갖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현재의 모습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변이와 적응을 통해 한 조상에 가서 그렇게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식과정에서 유전자의 재조합에 의한 변이의 가능성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개 순종들을 보면 크기는 10-280cm, 색깔은 검정-흰색, 털 길이는 0-10cm 이상까지 다양한 형태 모두 다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변이의 결과다.

또, 갈라파고스 섬에 15종이 넘는 핀치새들도 한 종류가 독특한 환경에 맞는 변이 형태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한 결과다. 이런 다양성(변이)은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때 유전자가 재조합된 결과인데 동일한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정보 안에서 재조합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사람의 경우 재조합되어 생길 변이의 가능성은 10405(0이 405개) 가지다. 우주의 총 원자 수가 불과 1080(0이 80개)밖에 안 되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내재해 있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갈 것이다. 신, 구대륙의 낙타의 모습들 두 거의 무한한 여러 변이 가능성 중에서 자연 환경에 맞는 것이 선택된 결과임에 틀림없다.

신대륙이나 구대륙에 있는 낙타들은 모습과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결국 한 종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염색체는 변형없이 74개를 모두 가지고 있고, 자연교배는 아니지만 인공교배를 통해 새끼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6000여 년 전에 종류대로 창조된 낙타의 후손들로서 4000여 년 전 바벨탑과 빙하시대 이후 사막화 등의 악화된 환경과 변이와 적응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타와 라마도 로마서 8:18-25의 선언과 같이 사막에서 혹은 고산지대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견디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뉴저지복음증장로교회)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2:17).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주신 복이라 받은 것이 복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무엇이든 다 제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다 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동산 안에 중요한 두 나무를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선악과는 독약이요 라고 독약이란 팻말을 거서고 생명과는 먹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유산을 받았지만 그 복의 내용도 그 유익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복이 복인지 감각이 없었고 여겨지고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금지된 선악과에게 유독 눈길도 갑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기도 하고, 그 일을 기뻐하는 아담은 너무도 밖에 일에 바빠집니다. 아담이 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꼭 같이 즐거워하던 늘 아담 곁에 있었을 텐데...

왜 하와는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장 붙은 선악과에 그리도 관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름조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게 알맞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담이 그토록 빠져 있는 이름 짓기의 동식물을 알아보는 지식의 능력이 하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리 신나하는 것 보고 있노라니 하루 이틀이지 내가 빠진 나의 일은 아니니 재미도 없어지고 심심해집니다. 하와의 관심이 남편이 그리도 기뻐하는 생물계에 대한 지식의 능력보다는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이 점점 궁핍해지고 쏠립니다. 마음에 탐심이란 소리가 목소리를 점점 높이니 점점 선악과나무 곁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의 이런 마음을 아는 마귀가 탐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경고보다 더 먹음직, 보람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끌어 내리는 의식의 날개를 달고 드디어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임한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않던 그의 의식 상태에 머구름이 드리워집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사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수치감에 정신이 없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니 죽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너무도 혼자 죽는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감당 못하게 올라오는 자신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 받을 벌에 대한 무서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생명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 손으로 끊어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알가림을 해야 하는 삶의 내용이 기쁨에서 고통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는데 능력이 따라주지 않으니 평안하던 마음에 열려, 불안, 초조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의 탐심에게 미혹되어 주어진 복조차도 유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약1:13-15).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음직, 보람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심의 선악과를 따 때 하와가 만난 죽음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구절절 유효합니다.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을 꾀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임한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길이 열리니 부끄럽고 무서운 감각 덕분에 인간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복으로 알게 해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용철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00 수 요 기도 회: 오후 7:3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 (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심 영 기도 회: 오후 8:00(수) 새벽 기도 회: 주일 6: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 유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2:00 금 요 기도 회: 오후 7:00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찬양: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주일찬양예배: 오후 6: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 엘 교회 담임목사 : 진용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영양) 오후 1:45 EM 예배: 오전 10:00 수 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 금 요 기도 회: 오후 8:00 대 회 청 년 부: 오후 1:30 중 주일학교: 오전 10:00(영양) 11:30 주일,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 이영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찬양예배: 오후 7:00 수 요 기도 회: 오전 6:30 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West, Box 8358, Lacey, WA 986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주일오전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1:15 수 요 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전 4:00 수 요 예배: 오후 7:30 금 요 찬양: 오후 8:00 수 요 예배: 오전 6:00 (월-토) Tel: (501) 920-9049 /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Fayetteville, AR 72711 WWW.JEJAS.COM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 요 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스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15-1490, 사택: (915)751-438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사망예배: 오후 2:30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 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김성환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6:00 Tel: (254)634-8705, (254)501-4833 408 W.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 요 예배: 오후 8:00 수 요 기도 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목 요 찬양: 저녁 8:00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 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 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수 요 찬양: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기도 회: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Tel: (253)535-6207, 531-9424 Fax: (253)536-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수명 1부 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금 요 기도 회: 오후 7:00 금 요 기도 회: 오전 5:30(월-토) Tel: (808)947-5252, Fax: (253)474-9515 www.hawaki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파장로교회 담임목사 :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x.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 요 예배: 오후 7:45 새벽 기도 회: (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Tel: (860) 643-4738 Fax: (860) 647-058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배: 오후 7:00 수 요 기도 회: 오전 5:30 (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장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 김순관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기도 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557-1778/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 요 기도 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남가주목사회, 6.25 조국과 민족 위한 성회 개최

남가주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6.25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회를 24일 저녁 7시30분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개최했다. 오세훈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성회는 박효우 회장이 인사말, 김명대 수석부회장이 대표기도를, 김종태 서기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이정현 직전회장이 ‘선진조국의 길과 사명’(느 1:1-7)이라는 제목

으로 설교를 했다. 이정현 목사는 “6.25가 발발했을 때 부산초교교회에 목회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기도를 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UN군의 파병을 허락하셨다. 이로 인해 한국이 위기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은 UN 16개국에 감사해야 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선진조국이 나아가야 할 사명은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바로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며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승철 협력부회장이 ‘조국의 평화와 6.25정신을 위하여’, 임의희 협력부회장이 ‘우리 민족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백지영 부회장이 ‘미주교계와 동포사회를 위하여’, 정종운 부회장이 ‘소외된 이웃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주재임 부회장이 ‘남가주교계와 목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문을 인도했다.

이날 성회는 변영의 남가주교협수석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목사회 주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회에서 이정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제31회 OC교회연합체육대회에의 육상경기모습

친선체육대회 종합우승 참빛장로교회

제31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협 주최

제31회 OC교회연합 친선 체육대회가 25일 세리토스 밸리 크리스천 스쿨에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개최됐다.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 비전한국교회(담임 임금빈 목사), 새삼교회(담임 광경동 목사), 은혜한국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참빛장로교회(담임 노대원 목사) 등 10여 교회가 참여했으며 영예의 종합우승은 참빛장로교회가 차지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배구, 족구, 줄다리기, 피구, 육상 등의 종목으로 펼쳐졌으며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물풍선 받기, 럭비공 굴리기, 풍선 전달하기, 수건 빼기, 퀴즈 등 명랑운동회가 추가돼 성인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등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사생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손찬우 회장은 “매년 6.25를 기념해 2세대에게 정체성 심어주고 민족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체육대회를 열었다. 마침 올해는 6.25발발 일에 체육대회가 열려 더욱 뜻 깊게 여겨진다. 미주체전으로 많은 교회가 참

여하지 못함이 아쉽지만 충실하 준비했다. 내년에는 더욱 더 풍성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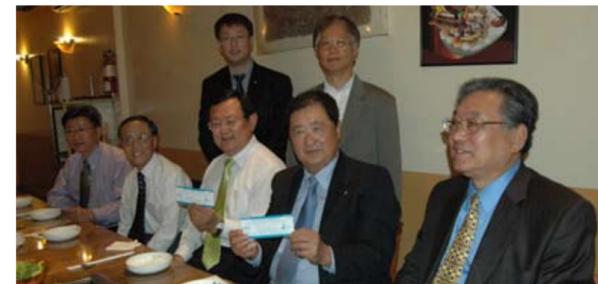
제회 팜스프링스한국학교 후원 오픈 골프대회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부설...2,663달러 전달

팜스프링스 한인 2세대의 교육발전 기금조성을 위해 팜스프링스한국학교(교장 박영두) 후원 오픈 골프대회가 지난 18일 PGA West Arnold Palmer Golf Course에서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남산교회 주최(회장 조순준)로 열렸다.

팜스프링스 지역 한인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골프대회는 10여 곳의 한인업소들이 후원으로 총 2,663달러를 팜스프링스 한국학교에 전달했다.

팜스프링스 한국학교는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담임 최승목 목사) 부설기관으로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하며 해마다 그 학생이 늘어나 현재 10여명의 교사들이 지도하며 30여명의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팜스프링스 전 지역



장학기금모금에 관한 일일식당에 대해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교협 임원진들

목회자자녀 장학기금모금 위한 일일식당

남가주교협주관 8월8-9일 다호식당에서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민종기 목사)는 22일 정오 다호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목회자자녀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일일식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협은 지난해 ‘작은 교회 교역자 자녀들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1일 식당’ 행사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30명의 목회자 자녀들

에게 각각 5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남가주교협 이사장 손수용 장로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100여명이 넘어 선별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모두가 어려운 교회들이어서 주부와 헌금역수를 참고하여 어려운 교회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 올해는 5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해 일일식당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선 백지영 목사는 “작년에 너무 급하게 해느라 생각만큼 성과를 누리지 못했다. 금년엔 일찍 시작해 충분히 준비하려고 한다. 교회와 성도들의 협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남가주교협은 오는 8월8일과 9일 다호식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일일식당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팜스프링스한국학교 후원오픈골프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잠자는 영성 깨워 마지막 세대 복음의 파수꾼으로”

2011 GKYM Vision 첫 준비위 모임...뉴욕, LA, 밴쿠버에서

뉴욕과 LA, 캐나다에서 개최될 2011 GKYM Vision을 위한 첫 준비위원회가 지난 9일 LA KCCC 사무실에서 열렸다.

미주서사화운동본부 이성우 목사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모임은 김지성 목사(글



준비위원회로 모여 2011 GKYM Vision을 논의하고 있는 위원들.

로발선교회), 권태산 목사(God's Dream Center), 김영빈 목사(베델 한인교회 선교담당), 김대섭 목사(은혜한국교회), 손영철 목사(주님의영광교회), 김문일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조현영 목사(큰빛갈리교회), 김정환 목사(남선교회), 이경화 목사(KPCA총회 선교총무), Sam Koh 목사(Hillside church), 장재영 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김동환 목사(KCCC USA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서 GKYM Vision 선교대회 실행위원장 김지성 목사는 “연합이 어려운 것은 연합의 이유를 모른 채 정보만 얻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특별히 북미주 지역의 모든 교회의 연합은 그 당위성과 동기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연임된 김동환 목사는 지난 사역을 보고하

며 2011년의 선교대회의 취지와 기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인교회가 미국 한인사회 속에 차세대를 세워가는 건언자 역할을 해줄 것과 교회의 규범을 떠나 모든 한인교회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복음의 마지막 세대를 키우고 준비된 그들을 선교의 현장에 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된 GKYM은 미주한인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 선교대회로 미주에 흩어진 한인 1.5세대 2세대의 잠자는 영성을 깨워 마지막 세대 복음의 파수꾼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GKYM Vision LA 선교대회는 12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샌디에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213)389-5222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김금옥 회장 연임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김금옥 목사)가 지난 27일 오전 에버그린교회(담임 김금옥 목사)에서 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회장인 김금옥 목사를 회장으로 연임시켰다. 김금옥 목사는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 안타까웠는데 연임이 돼 감사하고 기쁘다”며 “흠어진 동료 목사를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이정자 목사의 인도로, 대표기도 전희우 목사, 성경봉독 오영의 목사, 말씀 김금옥 목사는 “흠어진 여성목회자를 찾습니다”(눅15:1-7), 봉헌기도 이미선 목사, 축도 신인화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는 업무 보고와 함께 임원을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인화 목사)가 조직돼 2개월간 임무

보자 추천을 받고 중재한 결과 현 회장인 김금옥 목사와 현 부회장인 이정자 목사가 각각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투표결과 연임이 확정됐다. 김금옥 목사는 3회 연속 회장을 맡게 됐다. 취임 예배는 7월 25일(월) 오전 10시 에버그린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발족한지 3년이 된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는 40여명의 여성 목회자가 협회에 가입했으며, 해마다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해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목회자 간의 목회 정보 교환과 상호 협력 기구로서 그 역량을 넓히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6월 20일부터 3일간 제 3회 전국 컨퍼런스를 캐나다에서 개최한 바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김금옥 회장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 482-7788, cell: (917) 349-5631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www.nakwonchurch.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718) 464-2295, (718) 968-2225, Fax: (718) 762-48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 361-9199, Fax: (718) 361-8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30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9:00 Tel: (718) 461-2810, Fax: (718)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 461-7835 / CP, (718) 3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rivantic.org	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oongbu.org Tel: (718) 279-2757, 2758, Fax: (718) 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 639-3021, Fax: (718) 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 이문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예배: 오전 10:15 4부 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1:30 6부 예배: 오후 5:30 7부 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 예배: 새벽 6:0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매월) 주, 3주, 8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토요 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 예배: 오전 11:30 영어 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 333-1757 / 주, 3주, 8주, 11주 (516) 461-7466-4084 18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순복음 뉴욕교회 담임목사: 김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영성예배) 평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월) 6:30	어린양 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어 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5:00 영어 예배: 오후 1:00 Tel: (718) 787-8999, bonhess@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20 Tel: (718) 310-7061, 7062 188-12 72nd Ave Fresh Meadows, NY 11366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 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p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시(1부)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2부)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NCP영어: 오후 5시, 30분 TEL: 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ch.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N.Y.: Tel: (718) 896-4400 Fax: (718) 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교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전 7:00 Tel: (551) 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U-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 학교: 오후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9:3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9:00 714호스팅교회: 아침 7:40(제일)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3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 신학교 교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6:00 (1, 2, 3부 스페리니 빌라) Tel: (595) 21-574-985, E-mail: hanimkr@hanim.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동부교계 기사판



2011호산나부흥성회

뉴저지교협(회장 유병우 목사)가 주최하는 2011호산나부흥성회가 7월 8일(금)부터 10일(주)까지 뉴저지초대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646)241-6253

미드웨스트대학교 2011 가을학기 학생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2011 가을학기 신, 편입생을 모집한다.

▲문의: (636)327-4645

담임목사 청빙

PCA 교단 소속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문의: (215)927-0630

미주기독교문학회 7월 소풍

미주기독교문학회(회장 한재홍 목사) '7월 소풍'이 7월 18일(월) 오전 11시 플라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다.

▲문의: (646)404-1611

헌법개정안 통과위해 27일 임시총회

뉴욕교협 3차 실행위, 할렐루야대회장소 프라미스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가 헌법개정안을 통과를 위해 오는 27일(수) 오전 10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교협은 지난 27일 뉴욕메디슨대학교(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열린 제3차 실행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연평도 지원: 4월초 7천 달러 총영사관에 전달 △일본지진구호: 4만 347달러 일본영사관 및 선교사에 전달 △수속제작: 2천원 출판 광고비 6만750달러 중 5만여 달러 수급 △동성결혼법안통과 유감성명 우송 △



뉴욕교협 3차실행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드림액트법안 통과 추진 사업 계속 △뉴욕목사회사무실 대역 △기독교 인터넷 언론 댓글 관련 공문 발송 △조선족 한마당 축제: 안관현위원장, 7월10일 PS189 △청소년센터: 이주일 이사장 경과보고, 7월말 사무총장 선임되고 9, 10월 정상화 가능 △신학윤리위원회: 김영식 위원장, '뉴욕

지역 한인신학교에 대한 조언' △할렐루야대회 및 컨퍼런스: 9월 12-14일, 프라미스교회, 준비위원장 이희진 목사, 조직 발표 및 연합찬양대 구성, 4회 준비기도회, 회원교회 연합 부흥회 성격, 지도자컨퍼런스는 처음 실시, 협조 요청 △체육대회: 이황용 위원장, 메모리얼데이 평 토요일로 변경여부 설문조사 헌법개정안 발의: 유상열 위원장, 개정안 중 제 12장 선거 및 자격 제 2항 '현 회기 부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 후보가 되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세미나

뉴욕전도대학교 주최, 강사 김기남 목사

전도가 100배로 쉬워지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세미나가 지난 28일과 29일 뉴욕전도대학교(이사장 김영환 목사, 학장 김희복 목사) 주최로 열렸다.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강사 김기남 목사(부전 예수교회 담임)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의도=하나님의 마음=예수님 마음”이라며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전도”라고 역설했다.

또 “구약의 명령인 문화명령(창 1:28), 신약의 명령인 전도명령(마 28:18-20), 즉 성경적 전도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성령 충만으로 이뤄지며 정확한 복음을 증거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도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제1강 원리 및 적용원리, 2강 천국네비게이션, 3강 인생네비게이션, 4강 기독교 ABC, 5강 예수님 마음전도법 설계도, 6강 전도의 영적원리와 현상원리, 7강 전도시스템+목회시스템+전

도메시지, 8강 구원의 확신을 시켜 주는 확산반 특강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 (유원정 기자)

“주의 사랑과 공휴 나누다”

27일 뉴욕 나눔의집 개원예배, 상담사역도

뉴욕 한인노숙인의 쉼터인 '뉴욕 나눔의 집'(디렉터 안승백 목사)이 6월 27일 문을 열고 지난 27일 개원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안승백 목사 사회로 기도 주영광 목사(뉴욕한민교회 담임), 특송 유진웅 집사(뉴욕미션오케스트라 단장), 설교 박마이클 목사(세계선교나눔회 이사장), 개원 경과보고, 축사 김원기 뉴욕교협회장, 황동익 뉴욕교협증경회장, 격려사 문석진 목사(씨존대표, KCBN사장대행), 현금송 문진영, 현금기도 지도자 목사, 인사 및 광고 배영란 권사(세계나눔회 미주대표), 축도 노기숙 목사(국제장애인선교회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승백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고한 모든 스텝과 후원자에게 감사하며 특히 이 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터넷신문 씨존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하고 쉼터에 필요한 컴퓨터,

후리상제일교회 김중언 담임목사 은퇴송별예배

후리상제일교회 담임목사로 13년간 재직해온 김중언 목사가 지난 26일 저녁 은퇴송별예배를 드렸다. 1부 만찬에 이은 2부 경건의 시간에는 김중언 목사를 회고하는 사진과 성도들의 인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3부 석별의 시간에서 김진호 장로(목회협조위원장)가 전별금을 증정했으며, 뉴욕교협 회장 김원기 목사는

있을 경우에는 자동승계한다'는 조항은 개인의 '현 부회장이 단독 회장후보가 됐다 할지라도 투표를 거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전임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며 3개월 안에 재선출하지'는 안이 최다 득표를 얻어 임시총회에 상정되게 됐다.

이외에 임시총회 안건으로 대두된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분과와 유년분과 등을 청소년센터로 일임 사역의 능률을 높였으며 모든 청소년사역관리는 청소년지도위원회(특위)가 하게 된다.

또 산하기관으로 뉴욕청소년센터,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영여권목회 자협의회를 두고 협력기관 및 단체로 신학교협의회, 선교단체협의회를 둔다. 제8장 '직원'은 15조 '사무국장'을 삭제하고 간사를 직원(풀타임, 파트타임)으로 했다. 이 법안은 모범으로 각 위원회는 세칙을 갖게 된다.

한편 회의에 앞서 부회장 이종명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나라와 뉴욕교계를 위하여/오태환 목사 △할렐루야대회 및 지도자 컨퍼런스를 위하여/황영진 목사 △강사 서임중 목사와 대회 총준비를 위하여/이희선 목사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설교를 맡은 김해중 목사는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마침기도만 했다. (유원정 기자)

는 공로패를, 후리상제일교회 평신도 대표 강현석 장로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성도들의 단체 사진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중언 목사는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감사를 돌리며 성도들에게 사랑의 답사를 전했다. 이어 교인들과의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교인들은 예배당을 떠나는 김중언 목사를 환송했다.

정년을 3년 남겨 두고 조기은퇴를 선언한 김중언 목사는 오는 9월부터 한국 감리교신학교 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후임 장동일 목사는 다음 주 일인 7월 3일 부임하며 주일예배 후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2일간 진행되는 전교인 신앙수련회를 인도함으로 본격적인 담임목사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뉴욕나눔의 집 개원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CBS창작복음성가 경연대회 뉴욕예선 1등 김솔 2등 세라핌, 시카고미주결선 진출

뉴욕기독교TV 방송(KCTV, 사장 박용기 장로) 주최로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2회 한국 CBS 창작복음성가 경연대회(CBS Christian Music Festival) 본선진출을 위한 뉴욕/뉴저지 예선대회가 25일 오후 7시 후리상제일교회(담임 김중언 목사)에서 열렸다.



창작곡 동영상 1차 예선을 통과한 33개 팀 중 뉴욕/뉴저지 지역 10개 팀이 미주결선 진출을 위한 경합을 벌여 1등 김솔 자매(예수마을교회)와 2등 세라핌(강여진과 강지원 자매, 뉴욕한민교회)가 선출됐다. 이 두 팀은 7월 30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주결선에 진출한다. 특히 뉴욕한민교회 세라핌 팀은 성가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주영광 담임목사가 작사/작곡한 “나 주를 보리라”를 찬양했다. 심사는 이성규 목사(미국 다리농

는사람들 디렉터), 주성배 단장(가든스테이트 오페라단 단장), 박은주 집사(찬양사역자) 등 3인이 했다.

미주결선 대상자는 10월 한국 CBS 최종본선에 참가하게 되며 참가를 위한 왕복항공권과 체류비 전액이 제공된다. CBS복음성가 경연대회 미주예선은 처음으로 실시됐다.

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KCTV 이사장인 문석호 목사는 KCTV에 피아노를 기증한 김호상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그동안 KCTV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중언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니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8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18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Table with 3 columns: Type of ad, Size, Price. Includes categories like 전출(표지), 전면칼라, 전면흑백, etc.

Form for listing information with fields for church name, address, phone, fax, and email.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남가주교계, 일본지진 성금 3만7천여 불 전달 “센다이 재해는 현재 진행형”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중기 목사)가 지난달 10일 일본재해 현장을 방문, 일본지진재해 후원금 37,151.45달러를 센다이(仙台)기독교네트워크에 전달했다.

일본재난 직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고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호우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 OC목사회(회장 손태정 목사)가 공동주최해 일본지진쓰나미 후원금 모금 운

동을 전개한 결과 총 42,033.45달러가 모였으며 이중 광고비 및 전화비 경비 4,882달러를 제외한 전액을 전달했다.

직접 재해현장을 돌아보고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민중기 목사는 22일 오전 11시 남가주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금전달소식과 함께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남가주교협이 성금을 전달한 센

다이기독교네트워크는 요시다다가 시 목사를 위시해 현지 목회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재난 직후 지금까지 재난 현장을 돌아보고 그들의 재건을 돕고 있는 단체이다.

현재 피해를 당한 지역에 속한 교회는 총 88개 교회로 이중 32개의 교

회는 여러 가지 후원이 급박한 상황이며 나머지 교회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센다이기독교네트워크는 교회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적어도 5년 내에는 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협 임원진들은 “성금모금에 동참한 개인과 교회에 감사한다. 성금전달의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전달을 위한 방문경비는 교협과 총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가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자 기자)

또감사선교회회 새생명축제 성료

미제이 찬양팀, 장도원 장로, 랄프 윈터 참여

또감사선교회(담임 최경욱 목사) 새생명축제가 24일과 25일 양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새생명축제는 에스더, 별, 길건, 강균성 등 한국의 연예인들로 구성된 미제이 찬양팀이 초청되어 찬양을 선사했으며 헐리웃 프로듀서인 랄프 윈터, 장도원 장로(Forever21 대표)의 간증으로 진행됐다.

의류점을 시작해 포에버21을 창업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을 간증으로 풀어나갔다.

둘째 날 저녁 에스더, 강균성, 별 등의 공연으로 시작된 새생명축제는 미제이 찬양팀의 찬양인도가 있었으며 본 교회 장도원 장로의 간증으로 이어졌다. 장 장로는 어린 시절 부모의 도미로 홀로 한국에 남아 살았던 시절이야기로 간증을 시작, 홀로 한국에 살면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어 방황하던 이야기, 다방DJ로 취업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이야기, 도미 후 커피숍, 주유소, 사무실 청소 등 3잡으로 이민생활을 시작했고,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을 종자돈 삼아, 조그만

5대째 크리스천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장도원 장로는 “인터뷰 때 기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게 되고 가정과 아내 그리고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지게 된다”고 말했다.

장 장로는 1984년 LA의 조그만 의류점으로 시작해 현재는 전국에 ‘포에버 21’이라는 이름으로 47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10억 달러를 올리는 초대형 사업체로 키웠다.

한편 새생명축제 첫날에는 헐리웃 프로듀서이자 X-men, 판타스틱 4, 스타트랙 등을 제작한 랄프 윈터가 간증을 했다. (박준호 기자)



일본 재해현장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 민중기목사(우)와 요시다다가 시목사(좌)가 악수를 하고 있다.



다우니제일교회성립기념 및 원로목사 추대, 이문영 담임목사(원내)취임예배가 열리고있다

다우니제일교회 설립29주년기념 예배

황천영 원로목사 추대, 이문영 담임목사 취임

다우니제일교회(담임 황천영 목사)는 교회설립 29주년기념 예배 및 원로목사추대,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 10:31)라는 주제로 26일 오후 4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황천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기념예배는 김광철 목사(서노회 중경노회회장)가 기도를, 김상구 목사(KPCA 중경총회장, 남가주동신교회 원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빌1:3-1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해브리보이스 중창단이 축하 찬양을, 본 교회 김인평 원로장로가 교회연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형천 목사(나성영락교회 담임)가 축사를 했다.

이날 황천영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그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린다.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교회가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문영 신임 담임목사는 “다우니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맡은 사명 성실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천영 목사는 다우니제일교회 4대 담임목사로 22년간 시무했다. 황목사는 1973년 장로회신학대학에서 M.Div를 마쳤으며, 1975년 서울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1989년 다우니제일교회에 부임했다. 이문영 목사는 2000년 프린스턴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수료했으며, 2003년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2006년 나성영락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해왔다. (박준호 기자)

2부는 김정찬 목사(서남 노회장) 사회로 원로목사 추대식과 담임목사 취임식이 거행됐다. 원로목사 추대식에는 본 교회 황천영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며 추대패 전달, 황목사의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노대원 목사(서남노회 중경노회장)가 권면을, 허영진 목사(중경총회장)와 림



새생명축제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미제이 찬양팀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삶” 주제

남가주왕성교회 부흥성회 ITS 동문들 순서 맡아

남가주왕성교회(담임 안경찬 목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김삼열 목사(서울영남교회 담임)를 초청해 부흥사경회를 개최했다.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삶”이란 주제아래 열린 금번사경회는 ITS(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동문 연합집회 형식으로 개최돼 동문들이 순서를 맡아 진행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을 향해 “왜 도마가 의심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주님이 부활해 제자들을 찾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홀로 고립됐던 도마는 의심하게 됐다. 교회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 적극 교회모임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지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날 집회는 안경찬 목사의 인도, 강경욱 목사 기도, 임연수 전도사 특별찬양에 이어 김삼열 목사가 단에 올라 ‘믿는 자가 되라’(요20:26-39)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남가주왕성교회는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라는 표어아래 교회, 복음,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실천 목표로 삼고 전진하고 있다. ▲연락처(213)819-8811/kq6ni@yahoo.com (이성자 기자)

김삼열 목사는 서두에서 성도들을 향해 “왜 도마가 의심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주님이 부활해 제자들을 찾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홀로 고립됐던 도마는 의심하게 됐다. 교회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 적극 교회모임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지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부교계 게시판

동중 아프리카 선교사대회 건강검진에 참여할 의사 및 강사 급구

동중아프리카선교사대회(대회준비위원장 조규보 선교사)가 7월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동부, 중부 아프리카의 10개국 선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를 위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의사(특히 치과)와 말씀을 전할 강사를 급히 찾고 있다.

동중부 아프리카선교가 시작된지 30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 30년의 동중아프리카선교역사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선교를 준비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사들 250명, 선교사자녀들 200명 정도가 모이게 된다. 또한 선교사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2세 강사도 구하고 있다.

문의: SON Ministry (714)522-7766 son4u@hotmail.com

세리토스장로교회 3차 한여름밤의 말씀축제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3차 한여름밤의 말씀축제를 7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에 개최한다. 일정과 강사는 8일 김지성 목사(글로벌선교회) 15일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22일 김성민 목사(나성한인교회), 29일 김한요 목사(본교회 담임)이다.

문의: 이은재 목사 (562)860-5451(ext. 102), 정경민 목사 562-860-5451(ext. 109)

남가주주님의교회 새성전 입당 장경동목사 초청 부흥성회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새성전 입당 장경동목사 초청 부흥성회를 7월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문의: (626)839-9050



신인철목사가 담임목사 취임축하예배에서 축도하고있다

슈마교회 신인철 담임목사취임 축하예배

슈마교회는 신인철 담임목사 취임 축하예배를 26일 오후 4시30분에 개최했다. 본 교회 초대 담임인 이병선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축하예배는 정우선 장로가 기도를 레위성가단이 축하를 했으며 박동건 목사(CRC 한인디렉터)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는 교회’(롬1:1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김성봉 선생이 축하를 했으며 금병달 목사가 축사를 했다.

신인철 목사는 이날 “슈마교회가 신명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철석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무릎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베데스다대학교에서 학부와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주성결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김삼열목사

김항안목사의 시편영성산책!

☆ 한기총 언론상 출판부문 선정도서 ☆

“김항안 목사의 시편의 영성산책 ‘답음’은 지금까지 시편에 관해서 나온 수많은 책들과는 달리 시편에 담겨있는 영성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을 주에서 영성하여 뿜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면서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졌는지를 시편의 거울로 조영해 본 책이다. 성경은 훌륭한 사람만 등장시키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도 등장한다. 성공한 사람만 등장하지도 않는다. 실패한 사람도 많이 등장한다.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

김 항 안 목사(철학박사, 선교학박사)
목포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신학대학원, 독일 훔볼트대학, 서울신학대학, 강남대학, 총회신학 아세아신학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 출강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도서출판글로리아 대표, 목회신학연구원원장

저서 : 복음적인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만들기, 그리스찬사랑교육법, 목회방법 등 80여권

www.kccd.net 대표번호 1566-3004 FAX 824-4231~2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685 **한국교회정보센터** GLORIA

당신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고통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성공을 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성이 어떤 것인지, 실패를 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영성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시편이라는 현미경으로 시편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영성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될 것이며,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양약이요, 우리의 신앙을 견전하고 바르게 이끄는 영적 지침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쁨을 나누면서 슬픔을 나누면서...

미주내 구입처 (조이서적 : TEL, 800-662-7282 , LA: 323-766-8793), (뉴욕 할렐루야 기독교백화점 : 718-762-0011)

“예배와 성례전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로”

7월10일 장로교의 날 ‘변화와 젊음·미래’ 주제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 될 것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양병희(사진 오른쪽 세번째) 대표회장은 2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10일 오후 5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회 ‘장로교의 날’ 행사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장총은 이른바 보수와 진

보를 대표하는 장로교단이 어우러져 있는 유일한 연합기구”라면서 “이번 행사는 장로교 전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회장은 “예년과 크게 다르게 행사가 준비된다”면서 “1부 예배 자체가 젊은이들을 향한 오정현 사

랑의교회 목사의 메시지 선포, 신학대생들의 기수단 입장, 장신대·총신대·백석대 합창단의 찬양 등 변화와 젊음, 미래에 맞춰진다”고 설명했다. 또 “변화를 주도하는 장로교회”라는 이번 행사 주제에 걸맞게 내년 장로교단 총회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한장총 30개 회원교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연합과 일

치의 초석을 놓는다는 고백과 실천의 의미도 담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1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찬양에 배, 장로교회의 개혁을 선언하는 2부 개회식, 장로교 전통에 따른 3부 예배, 향후 한국장로교 100년의 비전을 밝히는 4부 한장총 선언 등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폐회선언에 앞서 양병희 대표회장의 인도로 30개 회원교단 총회장과 총무, 순서 담당자, 청년학생 대표단이 등단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를 다 함께 부른 뒤 장로교 연합과 일치를 선포하게 된다.

“40-80세 은퇴후 삶, 선교에 도전하세요”

2011시니어 선교한국대회 ‘시니어여, 열방을 향해 가자’

‘시니어여, 열방을 향해 가자.’ 40-80세에 해당되는 시니어 그룹을 위한 선교대회가 열렸다. 시니어선교한국(대표회장 김상복)은 23-25일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2011 시니어 선교한국대회’를 개최하고 400여 명의 시니어들에게 선교 비전을 제시했다.

대회는 23일 이재환 কমি션선교회 대표의 “선교에 제한이 없다”는 저녁 메시지부터 열정적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선교란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소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사명”이라며 “선교 자체는 제한이 없으나 우리 스스로 선교를 제한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선교를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하면 대부분 신자들은 선교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선교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니어 선교는 실버가 하는 미션이 아닌 골드 미션, 다이

아몬드 미션”이라며 “주님 앞에 다가 갈수록 선교에 힘쓰자”고 역설했다. 2007년 처음 시작돼 2년마다 열리는 시니어선교한국대회는 대학·청년을 위한 선교대회인 ‘선교한국 대회’와 함께 국내 대표적 선교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선교 현장에서 보내려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다양한 선교 참여 분야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교육, 농업, 목회간호, 비즈니스, 외국인, 시니어선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나와 구체적인 선교 방법을 제시했다. 또 22개 선교단체가 부스를 설치해 예비 시니어 선교사를 위한 정보도 제공했다.

시니어로서 WEC국제선교회 한국 대표를 지낸 최철희 선교사는 “현재 필요한 시니어 선교사는 1100여명에 이른다”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시니어들이 특정 선교 분야와 연결되면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 7월 7일 특별총회 주요 현안 묶어

‘패키지 투표’ 대표회장 인준 등 정상화 기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특별총회가 임박하면서 점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특별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한기총의 진로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길자연 이광선 목사가 두 차례에 걸쳐 합의문을 발표했고, 김홍호 대표회장 직무대행도 개정 원칙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363명 총회대의원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특별총회는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을 담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대표회장 인준, 관련 소송 취하 권고 여부 등이 주요 현안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특별총회 소집 공고를 내고 정관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특별총회에서는 그동안 정기총회나 실행위 등에서 해오던 방식과 달리 ‘패키지 투표’를 한다.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현안별로 묶었고, 이를 출석 대의원 3분의 2(정관의 경우) 또는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 여기엔 두 목사의 합의안과 김 직무대행의 개정안도 선택 항목으로 함께 올려 대의원들에게 선택토록 했다. 부결 시에는 현행대로 돌아간다.

‘개정안 묶음’은 선거관리규정, 대

표회장, 당연직 폐지, 임원회 구성과 자격, 명예회장 위촉과 자문위원회, 사무처, 전문 및 부처 등 총 7가지를 담았다. 모두 한기총 개혁 여부를 결정짓는 쟁점이다.

개정안은 당연직 대의원과 당연직 실행위원을 폐지하지는 내용을 담았다. 당연직은 그동안 총회대의원과 함께 한기총 총회를 구성했다. 현행 명예회장회의와 원로회의도 손질, 명예회장의 경우 실행위의 인준을 받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명예회장과 원로위원의 위촉 기간은 모두 10년으로 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행위 신고자에게 확인 금액의 50배 포상금 지급, 금품수수 대의원은 영구히 대의원으로 파송하지 않도록 교체한다는 것을 신설했다.

이 밖에 대표회장 후보 자격과 임

기, 후보 순번제 등도 관심사다. 대표회장 임기는 ‘1년 단임’ ‘2년 단임’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후보 자격은 교단 총회장이나 단체 대표를 역임한 자로 소속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총회장이나 대표를 역임한 자 또는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 직무대행이 지난 4-5월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내용이다. 한기총은 치리기관이 아닌 연합기관이라는 취지를 살려 현역 교단장 중심 체계 속의 합리적 운영, 조직 비대 경계, 대표회장 경선의 실질적 비례적 평등, 총회 의결권은 대의원에게만 부여, 선거관리 제재 조항 신설 등 5개 원칙을 담았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의 평화도구가 돼야”

6·25상기 기독교 장병 구국성회

“주여, 이 땅에서 전쟁의 참상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독교 장병과 군인가족 등 1만3000여명이 6·25전쟁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와 군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한국기독교인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이 주최한 제21회 ‘6·25상기 기독교 장병 구국성회’가 23일부터 2박3일간 경기도 파주 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24일 집회의 강사로 나선 임은미 케냐선교사는 예배소서 6장 13-1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임 선교사는 남북의 대치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크리스천이 평화의 도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선포했다.

설교 후 임 선교사는 세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군대 내 동료들을 위해, 각자의 성령충만을 위해 5분만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장병들의 기도는 20분이 지나도 멈출 줄 몰랐다.

군방부 군악대 최대명 상병은 “그동안 기독교 장병으로 주어진 영적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부대에 복귀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배 기도를 맡은 배봉원 육군 51사단장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에게 승리한 것을 예로 들며 기독교 장병들이 동료와 국가의 위정자, 안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한국군종목사단장 최문식(육군대령) 목사는 “참석한 장병들이 투철한 영적 무장을 한 뒤 군대 안에서 제대 후에 전 세계에서 평화 전도사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구국성회에서는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관선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장경동(대전중문교회) 이찬수(분당우리교회) 목사 등이 말씀을 전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씨는 연주와 간증으로 장병들을 격려했다.

예장 합동 96회 총회 임원후보 마감

목사부총회장 3명, 장로부총회장 2명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6회 총회 임원후보 마감 결과 목사부총회장 3명, 장로부총회장 2명, 부회장에 각각 2명이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위에 따르면 목사부총회장에는 김승동(구미 삼교교회) 박무용(대구 황금교회) 정준모(대구 성명교회) 목사가 임후보했으며, 장로부총회장에는 임재화 이완수 장로, 부회에는 임영식 윤선을 장로가 등록했다. 합동은 오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총회에서 예비합의로 당락을 가른다.

목사부총회장에 임후보한 김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과 인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단군상특별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교회인문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박 목사는 대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총회 서기, 군선교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정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과 리포드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총신대 재단 이사과 대신대 교수직을 맡고 있다.

한편 선거에는 고영기 서울 상암월드교회 목사, 부서기에는 김형국

하양교회 목사가 등록했다. 회록서기에는 이성택 서현교회 목사, 부회록서기에는 김재호 동산교회 목사가 임후보했다. 회계에는 김권중 장로가 단독 등록했다

홍민기 목사, 호산나교회 후임목사 부임

홍민기 목사가 최홍준 목사(사진)에 이어 부산 호산나교회 후임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홍 목사는 다음 달 24일 호산나교회 1-4부 주일예배 설교를 맡을 예정이며 같은 날 저녁 7시 부임예배를 드린 뒤 담임목사직을 수행한다.

호산나교회는 지난 4월 17일 홍 목사를 후임에 내정했고 5월 1일 공동의회를 거쳐 그를 후임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시 5,071명의 교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4,952(97.7%)명이 홍 목사를 후임으로 결정하는 데 찬성했다.

“위기의 한국교회 살릴 힘은 거룩함·성결”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정기총회, 기성, 나성, 예성 총회임원 등 참석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련)는 27일 서울 대치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본부 예배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성련은 우리나라 성결교단을 아우르는 연합기구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가 속해 있다. 이날 총회에는 세 교단 총회 임원 및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성 주남석 총회장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에서 나성 이영식 감독은 ‘행복한 성결인’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감독은 “요즘 한국교회

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에 필요한 처방이 거룩함·성결”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거룩과 성결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결을 추구하는 우리가 바로 행복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한성련은 주 총회장을 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이 감독과 예성 서광근 총회장을 공동회장으로 선임했다. 한성련 회칙에 따르면, 임원은 대표회장 1인과 공동회장 2인으로 예성, 기성, 나성 순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기성에서 대표회장직을 맡는다.

주 총회장은 “성결로 하나 된 우리 한성련이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성련은 굵직한 연합 사업들도 결의했다. 각 교단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 서기 목사들이 연중 강단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고, 9월에 임원회 주관으로 목회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평신도대회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신학·교육·국내선교·해외선교·사회복지·부흥·평신도·홍보출판 등 8개 분과별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웠다.

한성련은 2002년 기성과 예성이 두 교단의 협력을 위해 설립됐다. 2007년 성결교단 창립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두 교단 간 통합이 어그러지면서 한성련의 활동도 잠깐 중단됐다. 이후 4년 만에 나성까지 동참하며 지난 1월 범 성결교회의 연합기구로 복원됐다.

정성어린 마음으로...

제미장사는 자체건물과 3개의 채플룸을 갖춘 **미국 유수의 종합 장례식장**으로 정성스런 서비스와 편리한 파킹으로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고인과 유족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미장사에서는 묘지구입, 비석설치, 한국 운구 등 **장례에 관한 모든것**을 상담해 드리며 친절한 한국인 직원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장례 서비스 실시간 중계방송** (전세계 가능)

뉴욕한인회(KAAGNY) 명예한인
Edward D. Jamie Funeral Chapel, LLC
141-2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1.2660 / 무료전화 1.800.450.3498
www.jamiefuneralhome.com

제미장사의 설립자 Edward D, Jamie의 아들 리안 제이미(Leon Jamie)씨가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인정신의 장례식장으로 21세기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발맞추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고 전통을 중시하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소련 선교20년” 제16차 구소련 한인선교사 대회

한국형 선교모델의 재발견, 은혜한인교회, KWMA, KWMC 후원

제16차 구 소련 한인선교사대회가 오는 8월 16-1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소재 비슈케크 은혜교회와 인근 이씨골 홀수 수양관에 “구소련 선교20년”(한국형 선교모델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선교대회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USSR)의 해체로 독립한 11개 공화국에서 사역하는 700여명의 한인 선교사 중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200여명이 참석하며, ‘구소련 한인선교사협의회’(회장 강형민 선교사)가 주최하고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KWMA, KWMC 등이 후원한다.

지난 22일 오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6년간 현지에서 사역 중인 강형민 회장은 “이 지역 선교20년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형 선교모델을 정립하고 러시아정교 및 이슬람 선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며 보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라



제 16차 구소련한인선교사대회 기자회견이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고 말하며 “지난 1992년 3월부터 시작된 대회는 올해로 16차를 맞이하게 됐으며 2년마다 한 차례씩 열린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스라엘 국민 중 약 3분의1이 러시아어 사용자이며 그들은 러시아에서 살던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대인 선교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강사로도 참여하는 한기홍 목사는 “고르바초프와 옐친 시절부터 구소련 지역은 추수를 기다리는 밭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다”며 “이 행사는 선교사에게 영적 재충전과 새로운 길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도에 관한 ‘하나의 행동규범’ 펼친다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 행동 지침 발표

WEA, WCC, 로마교황청

전 세계 교회가 다종교 환경 속에서 기독교 선교와 복음전도를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공통의 행동 규범을 갖게 됐다. 세계 복음연맹(WEA), 세계교회협의회(WCC), 로마 교황청은 스위스 제네바 시각으로 28일, 공동의 문서인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 행동 지침(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을 발표하고 그 채택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이 문서는 종교 간 또는 종파 간 대립과 갈등이 기독교 선교와 복음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기독교인과,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이같은 대립과 갈등에 대처할 때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적·윤리적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최초의 문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주요 3개 기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 하에 집필에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그 내용을 지지하고, 연구와 적용을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WEA와 WCC, 그리고 교황청 종교대화평의회(PCID)는 이 문서를 위해 지난 5년간 협력해 왔다. 2006년 이탈리아, 2007년 프랑스, 2011년 태국에서 열린 총 3회의 컨설팅 끝에 완성된 결과물인 이 문서는 곧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에서 제프 터니클리프 WEA 대표, 울라프 트비트 WCC 총무,

장 루이 토랑 PCID 회장이 함께 한 가운데 내용이 공개된다.

문서는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선교와 복음전도 활동에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이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선교와 복음전도를 위해서 타 종교와 종파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 이같은 노력은 모든 종교와 문화에 속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믿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문서는 종교자유에 대해서도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믿는 바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주어진 권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선교와 복음전도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종교자유를 보장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타 종교인의 종교자유를 침범해서는 안되는 의무 또한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선교와 복음전도 현장에 강제적인 수단의 개입을 막고, 모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들을 배제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행동 규범들도 이에 기초해서 작성됐다.



목회자자녀 장학기금마련 성가합창제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주최 17일 감사한인교회에서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김영대 목사/지휘 전중재 교수)이 주최하는 제 1회 목회자자녀 장학기금 마련 성가합창제가 오는 17일(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목사)에서 열린다. 임원진들은 27일 정오 오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취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마른 이들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목사장로부부합창단을 시작했다”고 설립 목적을 소개하는 김영대 목사는 “이번 찬양제에 참석하는 교회들은

모두 중, 소형교회들이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지휘자 전중재 교수는 “금번 첫 찬양제에 9팀이 참가하게 돼이고 참가팀들이 각 2곡을 선보인다. 이 날 목사장로부부찬양단도 ‘다 감사드리세, 주 찬양해’를 부르게 된다”며 “이번 행사는 5대 단장인 김영대 목사 제의로 시작됐고 모금된 장학기금은 중소형교회목사 자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2006년 4



기자회견을 통해 장학기금마련 성가합창제를 설명하는 임원단들. 좌로부터 김세라사모(회계), 전중재교수(지휘), 김영대목사(단장), 김정근목사(총무).

월예 준비모임을 갖고 설립했으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나성영락교회에서 60여명의 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귀띔하는 총무 김정근 목사는 “찬양에 관심 있는 목사, 장

로부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것은 (213)703-5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드웨스트대학교 개교 25주년 행사

2011년 학위수여식 및 축하음악회 개최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Founder/President Dr. James Song)는 개교 25주년을 맞아 지난날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중부에 위치한 세인트루이스 본교 캠퍼스에서 여름특강, 25주년 기념식, 학위수여식 및 기념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17일 설립25주년 기념행사는 정진경박사기념세계선교센터에서 Dr. Earl Haskins(본교이사)의 인도로 시작해 강대혁 박사(미주 총동문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남식 박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행19:21-22)는 제목으로 축하 메시

지를 전했다. 특별히 19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본교 총장을 역임한 넬슨(Dr. Marlin L. Nelson)박사에게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제25회 학위수여식이 졸업생 39명(학사11명, 석사22명, 박사6명)과 동문 그리고 재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명환 박사(Academic Dean)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임스송 총장은 훈시를 통해 “25년 전에 세계복음주의협회(IEA)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출발한 미드웨스트대학교가 이제 설립 25주년



졸업식을 마치고 교수와 졸업생들이 기념촬영했다

을 맞았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선교와 사역의 현장에서 힘써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드웨스트 동문들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우리 대학은 성장해왔습니다. 새로운 생각

자기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글로벌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 가운데 힘차게 전 세계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라고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엄문용 박사(본교이사), 윤항기 목사(본교동문, 예음신학교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윤항기 박사는 미드웨스트대학교에서 학사와 박사학위를 이수한 동문으로 한국의 음악작사 1호로서 성공적 사역을 해왔고 전 예장개혁 총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예음

신대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나오다 더 훌륭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 바라다”고 격려했다.

저녁에는 졸업생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25주년기념 및 졸업축하의 자리로 “2011 Summer Music Festival”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에는 본교 동문인 윤항기 목사와 찬양팀이 특별출연해 음악회를 한층 빛내주었다.

본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idwest.edu를 방문하거나 usa@midwest.edu 혹은 전화 (636)327-4645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저녁 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p>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 (131-231)</p>	<p>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64번지</p>	<p>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 936-1번지</p>	<p>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Tel: (03)1977-8383~9,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경동구 영일동 330-5, (134-830)</p>	<p>뱅크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운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 896-6077 경기도 용인시 사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91~3, Tel: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 520 (158-4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8-98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문 Tel: (82)2-2643-8553~4, Fax: 2647-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3동 713-26호</p>
<p>수영교교회 담임목사: 정필도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8-1, (612-824)</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2-849-9191, 사택(82)2-844-1571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665-11</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2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교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영등포구 신길 63-3, (150-051)</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9-45</p>	<p>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2동 146-7</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86-4710~4, Fax: (055)286-3494 (641-370) 경남 창원시 신촌동 20-3</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Tel: (02)3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Tel: (82)2-527-1009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희도 Tel: (82)2-786-6579,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 FAX: (043)274-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종순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선교지 소식



캄보디아

7주간 비교적인 한국 일정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1. 헤브론 병원 후원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지난 5월 17일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있었습니다. 헤브론 캄보디아 의료선교회에서 주최하고 (위임)에서 주관하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400여 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출연진이 정성을 다해 연주를 해주셨고 1200석이나 되는 객석을 채워주시면서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어린 후원은 헤브론 병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고 작은 규모인 헤브론 병원을 돕는 손길을 하나님은 이처럼 동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2.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서 서울 백병원에서는 헤브론 병원을 통하여 한국에 보내진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 5명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수술을 받은 소킴이라는 아주 약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4살이 되지만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맞추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수술 후 소킴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이 넘도록 일반 병실로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가 캄보디아로 돌아온 지 두 달이 되어 가는 데 며칠 전 병원에 온 소킴은 아주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걷고, 손에 힘이 없어 아무 것도 쥌 수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손가락질도 하고 우리가 내민 손가락을 꼭 잡아 보였습니다. 표정도

분명해지고 장난스런 미소를 띤 소킴은 우리들의 가슴을 얼마나 환하게 해주었고 건강을 회복한 다른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3. 6월 4일부터 7일까지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수술팀이 헤브론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40여명의 크고 작은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수술 받은 환자 중에 스페이네양이라는 16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열과 고관절의 심한 염증이 시달리면서 지방의 보전소를 전전했으나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수술팀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 이 소녀가 헤브론 병원을 찾아왔고 그날 감사한 결과로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지체없이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고열은 일주일이나 계속되며 염증 증세가 계속되어 병원 식구들은 애가 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쯤 아주 많이 좋아졌고 고열도 내리고 웃고 말을 잘하고 걸을 수 있어서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만약 이 소녀가 수술팀을 제 때에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 사랑에 다시 놀라게 됩니다.

4. 6월 16일 3명의 캄보디아 의대 7학년 학생들이 한국으로 3주간 연수교육을 떠났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 5개월 동안 헤브론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신앙 훈련을 몇 해 동안 받았고 성실하고 똑똑해서 기대를 할 만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졸업한 모교인 가톨릭 의대와 성모병원으로의 연수를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3명 중 한명은 지난 5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후원해주었던 학생입니다.

캄보디아 의사를 한국 연수는 더러 있는 일이지만 의대학생 연수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당부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가거든 돈을 많이 버는 의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의사가 되려는 생각을 떠나서 정말로 좋은 의사가 되고 캄보디아의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면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진지하게 듣던 학생들 표정에서 캄보디아의 미래를 보았

습니다. 새벽 4시반 병원 문이 열리면 대문 밖에 기다리던 환자들이 뛰어 들어오며 지르는 함성 같은 소리에 잠깐씩 잠이 깨곤 합니다. 오늘도 밤잠을 안자고 먼 길을 어렵게 찾아온 고단한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헤브론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헤브론 병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귀한 물질을 보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가난과 질병 속에 고생하던 캄보디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저희는 더 열심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입원실과 수술실을 전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준비가 잘 갖춰지도록

2. 사람을 길러내는 간호대학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3. 헤브론 병원 후원이 잘 연결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4. 7월과 8월에 헤브론 병원을 찾는 단기 의료 봉사팀들과의 좋은 협력을 이루어 내도록

헤브론 병원 김우정 박정희 선교사 올림



“헌지인 배려·절제, 선교도 안전도 이상無”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단기선교팀 파송예배가 잇따르고 있다. 선교는 꼭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가 요구된다. 최근 선교한국으로 떠오르는 한국 교회가 해외 단기 선교에 따른 위기관리에 대해 세미나를 열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최근 서울 본동 노랑진교회에서 ‘단기봉사팀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 내용을 미션라이프 인터넷 판이 보도한 것이다. [편집자주]

‘해외 단기봉사 위기관리 세미나’ 지상중계

교회나 선교단체들의 해외 단기봉사 활동이 본격 케도에 올랐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상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외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은 각 팀만의 고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낸 교회나 선교단체, 나아가 기독교계 전체에도 충격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예측 가능한 위기와 재난은 없다. 예방하거나 상황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출발전 할 일=우선 한국 외교교통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에서 국가별 여행 경보와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을 해야 한다. ‘동행’이라 불리는 인터넷 등록제도는 해외여행자가 신상정보와 국내 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여행 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인터넷 등록과 함께 목적지의 안전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정부의 소재 파악이 확실해진다.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팀원의 해외여행 서류가 완비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적법한 여권과 비자, 항공권, 보험 등을 챙기자. 활동하게 될 국가의 법률, 제

도 및 정치, 사회 변화 등도 출발 전 살펴야 하며 기후와 지리, 건강 관련 사항도 파악해 준비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지역(38개국)의 경우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만 4세 이상 유아와 청소년은 MMR 백신을 2회 접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조용히 신중하게=현지 봉사활동 중 이동하는 경우에도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이동 시 5-10명씩 나눠 소규모로 움직이는 게 노출이 적고 현지인들에게 위화감을 덜어준다.

팀원들의 영적·정신적·육체적 상황을 항상 점검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현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이 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더는 팀원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나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나 선교단체의 경우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즉시 소집돼 상황에 대처할 팀을 구성해 놔야 한다. 또 각 팀 리더에 대한 위기교육도 사전에 실시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법률적으로 지원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서류도 확보해놔야 한다.

NTM부족선교회 윤규석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와 맞닥뜨릴 수도 있다”며 “교회는 이러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팀이 현지에서 잘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기봉사팀은 최대한 절제된 가운데 활동해야 한다. 특히 말하기, 웃자람, 카메라 운용 등은 신중해야 한다. 사소한 것 같지만 현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조용하게,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자.

단기팀 활동은 최근 한국세션교회협의회(KWMA)가 권고한 단기팀 운영 매뉴얼에 맞추는 게 좋다. 리서치를 비롯해 체육·의료 봉사, 문화(전통춤, 비보이, 사물놀이, 음식 등) 사역 등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8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나성열린문교회</h4> <p>담임목사: 박형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p> <p>Tel. (213)413-1600, Fax.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door.org</p>	<h4>나성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388-7101, Fax.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h4>나성서부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p> <p>Tel. (323)939-7323, Fax.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90019 (Pico+Fairfax)</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h4>남가주리더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예배: 오후 12:55</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다우니제일교회</h4> <p>담임목사: 황정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교육부특별예배: 오전 11:00</p> <p>Tel. (562)861-1004, Fax. (562)923-6705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저녁 8:0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동문교회</h4> <p>담임목사: 고현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483-6825 /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받은 소위 원주민 동역자를 기쁘게 합니다.”</p> <p>Tel. (213)210-6890 / Fax. (21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기도와 상담: 화목 오전 10시부터-</p>	<h4>드림교회</h4> <p>담임목사: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4>만남의교회</h4> <p>담임목사: 박성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영성): 오전 10:30 영양예배(영성): 오후 1:00 EM 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hurchmannam.org Tel. (818)882-9191, Fax. (818)882-9777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 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송정병</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오전 9: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청년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www.milosepac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방주선교회</h4> <p>담임목사: 박동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대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대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대체) 주일 4부예배: 오후 5:00(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 (916)482-8800, 4960 / Fax. (916)482-5571 Web-site: www.arkmissionchurch.org</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손인식</p> <p>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청년영양예배: 오전 7:30 오전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org</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브리지교회</h4> <p>담임목사: 장세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25 영양예배: 오후 1:30</p> <p>Tel. (626)339-6177, Fax. (626)967-3078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h4>삼성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행복한기도회: 오전 6:00(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samsungjangrochurch.org Tel. (562)690-89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h4>세계비전 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연</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0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 금)</p> <p>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18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818)88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새창조교회</h4> <p>담임목사: 정병재</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p>	<h4>샌디에고 영락교회</h4> <p>담임목사: 김병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교양찬양예배: 오전 11:00</p> <p>Tel. (619)571-5509 / home: (619)384-6546 2130 Ulric St., San Diego, CA 92111 myungk153@yahoo.com</p>	<h4>안디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지윤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교양찬양예배: 오전 11:00</p> <p>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po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h4>얼빈침례교회</h4> <p>담임목사: 한중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화-토)</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4>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엄영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45 영양예배: 오전 11:00 중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Tel. (714)891-2029 / Fax. (714)373-3091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p>	<h4>요셉선교회</h4>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p>
<h4>월셔크리스천교회</h4>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4272, Fax. (213)384-86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영양예배: 오전 3:30(월-토), 6:00(토)</p> <p>www.gullemi.com Tel. (714)446-623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인랜드교회</h4> <p>담임목사: 최병수</p> <p>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주일 4부: 오후 1:30 영양예배: 오전 9:00, 10:30</p> <p>www.inlandchurch.org Tel. (909)622-2324, Fax. (909)6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6:3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h4>창대교회</h4> <p>담임목사: 이춘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www.gpc.com Tel. (909)388-9245,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www.cornerstonev.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2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하나님의 뜻나타냄’ 이기독교리더십!

국제제자훈련원, 기독교 사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의 4가지 요소 재조명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떤 공동체 내에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통일된 조직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핵심적 기능이 발휘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본다. 따라서 리더십은 한 공동체 운영에 있어 구심력을 형성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힘이다.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한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단결하게 하여 이것을 실현하는데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십은 이런 의미에서 강제적 권위를 앞세워 구성원을 유인하는 헤드십(headship)과 엄격히 구별된다. 헤드십은 공식적 권위와 지위에서 법으로 인정된 권한을 기반으로 발생하지만 리더십은 비공식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영향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리더십은 공동체의 특징에 따라 그 의미나 방법, 영향력도 달라지게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조직경험과 이윤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리더십과 분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 기독교 사역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세상적인 요소들”을 조금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내에서 지금까지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4가지 요소들을 정리해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1. 우선 기독교 리더십의 가장 근본 뿌리는 바로 “소명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충실한 일꾼을 세우나가신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 소명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목표를 세우나가기 위해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포착하여 거기에 대한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소명적 의무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리더십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기독교 리더십의 특징은 바로 “비전을 제시”한다.

기독교 리더십에 있어서 비전이란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이다. 비전은 리더가 자신의 그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분명한 그림이다. 그리고 리더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을든. 이것을 기초로 한 리더십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4. 기독교 리더십의 특징은 바로 “겸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리더로서 잠재력을 키우고 싶다면 조용하고도 기쁘게 비판을 듣고 잘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겸손, 혹은 운운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한다. 리더의 평온은 겸손으로 육성되며, 겸손을 통해 삶의 확장을 이루게 된다. 이런 겸



이나 난관이 있어도 당당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출발은 거창했지만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값진 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손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과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으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사람들

소명에서부터 출발

비전 제시

사랑 실천

겸손이 기본

을 섬기는 삶의 태도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결국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리더는 주님께로부터 자신의 힘이 온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표류하는 갈등보다는 명확한 비전을, 세속적인 권위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섬기는 겸손을 발휘해야 한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일 아브라함의 영권(창20:1-18) 찬93장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실의 성품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20). 외지에서 그랄 왕에게 대항 한번 못해보고 아내를 빼앗긴 약한 아브라함은 실상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위탁할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했습니다(3). 아내를 빼

앗긴 아브라함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날 밤 아비멜렉을 경고해 아내를 찾아주셨습니다. 셋째, 기도의 치료로 나타났습니다(17).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일찍이 그가 소돔 고모라의 치료를 위해 기도한 것(창19:29)처럼 기도할 때 영권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좇아 기도에 힘쓰십시오.

화 사라의 찬양(창21:1-7) 찬310장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찬양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을 보고 불신했던 사라의 마음은 주님의 책망을 통해 신앙으로 변화됐고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전능자를 의지하는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전능자와의 교제가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요17:3, 요일1:7) 둘째, 함께 웃을 줄 알았습니다(6). 그 은혜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만민이 복있는 여자라 하리라는 마리아의 찬양과 주권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한나의 찬양처럼 사라는 교회의 웃음이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꿈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따라갑시다(7).

로 영생의 본질입니다.(요17:3, 요일1:7) 둘째, 함께 웃을 줄 알았습니다(6). 그 은혜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만민이 복있는 여자라 하리라는 마리아의 찬양과 주권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한나의 찬양처럼 사라는 교회의 웃음이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꿈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따라갑시다(7).

수 구별하시라 하나님(창21:8-21) 찬9장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아들일지라도 이삭과 나눠져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약속의 자녀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갈에 대한 억울한 처우에 대해 하나님의 일정한 은혜가 주어졌지만 언약의 거룩함을 세우시기 위해 이 둘은 구분되어야만 했습니다. 둘째, 육은 기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은 그 어느 하나도 성령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갈4:29-31).

육신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롬8:7). 셋째,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실제인 그리스도만이 구속을 이루기 때문에 이삭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완성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주시는 성령을 좇아 거룩함을 이룹시다.

목 높이시는 하나님(창21:22-34) 찬375장

그랄에 거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 주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첫째,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22)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의 일상을 통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화친을 요구했습니다(23). 둘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때(33) 언약을 체결한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제단을 쌓

고 예배한 것을 암시합니다. 예노스 시대에 일어난 부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된 것처럼 그는 예배를 통해 창대한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나그네의 땅에서 본향을 바라볼 때(34) 제한된 예배를 기점으로 그의 생애는 영원한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산제사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도 우뚝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금 모리아의 대속물(창22:1-24) 찬353장

이삭이 성장할 때 아브라함이 당한 시련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첫째,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불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구속자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대신 드러진 한 숫양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려줍니다. 그의 대속의 죽

음으로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셋째, 하나님과 교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13-14). 여호와 이레라는 기념비는 여호와와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의 지속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 안에 준비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토 의를 세우는 아브라함(창23:1-20) 찬409장

칭의로 언약백성이 돼 가정에서부터 의를 세우 아브라함은 본분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큰 슬픔 중에서도 의를 세웠습니다(2-4). 사라의 자연적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며 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둘째, 왕적 지위에서도 겸손으로 의를 세웠습니다. 헛 사람을 찾아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

니고 가난한 심정으로 구한 것은 믿음의 조상다운 태도입니다. 셋째,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무덤을 샀습니다. 쉽게 들어오는 것이라도 의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위대 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값진 은혜를 불로소득으로 전락시키기 쉬운 위험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기동같은 의가 무너지는 시대에 아브라함의 지혜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5면 신앙상담에서 계속)

4.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맡겨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미 전도종족의 90%가 주로 10/40원도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현재 약 3,305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선교사들의 80%가 이미 교회가 있고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곳에 중복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작 선교사가 없는 전도 종족들에게는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의 영혼들은 지금도 바울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 달라고 손짓하던 것처럼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미 전도종족은 오늘의 새 마케도 나입니다. 미 전도종족 중에서도 인구

심만명 이상 되는 도시는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교회가 한 종족씩 맡아서 집중적으로 선교하면 좋을 것입니다.

(5면에서 계속)

예수님의 명령이 없어도 삭개오는 죄를 지은 것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다. 주님은 말리지 않으셨다. 하지만 회개한 삭개오는 물론 그의 세리 친구들과 다른 죄인 친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당시의 최고의 교제 상징인 식사잔치에 참여하셨다.

마찬가지이다.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 많은 교단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그것이 동성애

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넘어가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그 사랑의 실현이다.

교회나 교단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기관이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가 동성애를 합리화 하고 정당화 하고 합법화 하는 법규로 만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생활이 아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인터뷰 황지용 목사(군목)

청년 미군들의 영혼을 책임진다!

“교회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해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군부대 현장에서의 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한 청년들이 50명이 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것을 볼 때 군목사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1세로 미군 채플린으로 복무중인 황지용 목사. 지난 4일 월드 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목사)에서 목회학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그는 자신이 군목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고백했다.

“한국에서 국방부에서 복무하면서 군중병으로 사역할 때 해본보이스 찬양팀을 이끌고 전국의 부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찬양집회를 해왔습니다. 군복음화 사역의 일환으로 제의를 받고 시작한 찬양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에 대한 마



장교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저에게 실망감으로 밀려오더군요.”

그러나 그가 느낀 실망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비록 사병으로 임대를 했지만 군 입대로 인해 신분문제가 해결됐을 뿐 아니라 지휘관으로부터 군목 제의를 받게 됐다.

한어권 사역을 추천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미군들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가 장교이다 보니 거리를 두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침 월드미션대학교의 최선영 교수님께 월드미션대학교를 소개받았고 그분의 추천으로 월드미션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군복무로 인해 월드미션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러나 월드미션의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좌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통 정해진 기간 내에 주어진 과제물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수업내용에 대해 교수가 학생과 직접 이메일로 대화를 하며 격려도 해주는 등 마치 담당교수의 강의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월드미션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꼭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에는 학교 사정상 과목개설이 되지 않아 그 과목을 들으려면 길게는 1년반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위해 IS(Independence Study)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교육에서는 한 학생을 위하여 그가 필요한 필수과목을 오픈해주는 일종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활용해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편

군목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건 안돼 시작한 사병생활이 큰 도움

음을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1994년부터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해오던 황 목사는 2001년 6월 이민을 와서도 예수전도단 사역을 계속하게 됐다. 그러던 그가 군목의 길을 가게 된 것은 2008년 사병으로 입대하면서부터이다.

“2007년 당시 벤나이스연합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풀러신학교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러나 경제적 문제로 학교를 다니기 어려워 상담을 받았는데 군목이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군입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황 목사는 한국에서 군중병으로 사역할 때부터 군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에 군목이 되면 자신의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신분문제로 인한 장벽으로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꿈꿔오던 군목의 길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당시 종교비자로 체류 중이었기에 영주권자 이상만 해당되는

“비록 제가 처음부터 장교로 가지 못하고 사병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저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선 사병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폴잭슨에 있는 훈련소에서 18세, 19세의 동료들과 같이 기초훈련을 받으면서 2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을 통해 그들을 알게 되니까 더더욱 그들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해 품으셨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황 목사는 폴잭슨 군목학교에서 채플린 리더십 코스를 이수하고 임관 후 군목으로 사역을 해나가면서 어려운 점은 언어문제와 문화적인 차이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해야 하니까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1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몸에 배인 영어가 아닌 학습으로 익힌 영어이다 보니 언어적 어려움이 늘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도 1세이기에 영어권 사역보다는

하는 병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사병출신이라고 하니깐 그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예요. 제가 신분문제로 사병으로 가게 된 것이 그 당시에는 실망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저를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물고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황 목사는 갈 길이 많고 멀지만 지금 그가 꿈꿔온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전했다. 군대특성상 군목과 군의관 등은 중위로 진급을 하며 군 생활을 하지만 대위로 2계급 특진하게 돼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가 대위로 특진할 정도로 군 생활에 모범을 보인 것에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군목학교에서 공부를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학기를 마칠 수 있게 배려해줬다고 밝혔다.

“풀러신학교에서 원격으로 공부할 때였어요. 학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군 생활과 학업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황 목사 역시 이 커리큘럼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찬양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증거 하길 좋아하며 대위라는 계급은 단지 군목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황지용 목사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할 때부터 만든 곡만도 100여곡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중에 잘 알려진 곡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찬양사역자 유은성 씨가 부른 ‘로렘나루 아래에서’라고 수줍게 말했다.

군생활 중인 청년들이 내적으로 겪는 갈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사병들의 아픔을 볼 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는 황 목사는 ECA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부인인 황윤희 사모와 슬하에 두 아들 언약(7세)과 예담(2세)이 있다. 가능하다면 두 아이 정도 입학해서 키우고 싶다고 말하는 황지용 목사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군목사역을 계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준호 기자)

새책 소개



“크리스찬 문학” 제 22집

크리스천문인협회 발행

‘누구라도 그를 부르려면/속삭임으로 안 된다/자장가처럼 노래해도 안 된다/사자처럼 표호 하며/평화여, 아니 더 크게/평화여, 천둥 울려야 한다/그 인격과 품위/그의 출중한 아름다움/그가 만인의 연인이여/새천년 이쪽저쪽의 최고 인물인/평화여 평화여 부디오십시오오라고/피멍 무릅쓰고 혼신으로/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중략) 크리스찬문학 제 22집 초대 시 첫 면을 장식한 김남조 시인의 ‘평화’의 일부분이다.



이민생활 속 느끼는 진솔한 삶 이야기 답아

가 ‘크리스찬문학 제 22집’을 출간했다. 크리스찬문인협회는 매년 신인작품을 모집함으로써 새로운 문인을 발굴하고 여기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한 것이 벌써 22집째. ‘크리스찬 문학’집에는 이민의 삶속에서 겪는 애환들이 시와 수필, 소설 등으로 진솔하게 실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번에 발행된 22집은 앞과 뒤를 화보로 장식해 지난 한 해 동안의 발자취를 알기 쉽게 열거했다. 정지운 회장은 권두언을 통해 신인회원들과 초대작가, 시인 등 많은 글들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글, 좋은 사이, 좋은 친구’를 생각하며 행복한 삶을 살자”고 권하고 있다.

본 서에는 김남조, 김완희 외 4인의 초대 시와 회원 고현혜를 비롯한 24인 시가 수록돼 있다. 또한 수필부문에서는 김동길 교수, 박재호 목사 이래라 찬양사역자의 초대수필과 함께 김상운 외 5인의 회원수필, 박요한 목사의 초대소설 ‘에들의 땅’과 김상분, 남소희 회원소설뿐 아니라 특별기고와 평론 등이 총 366쪽을 장식하고 있다.

한편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에서는 제 25회 신인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시 3편 이상, 단편소설 200자원고지 50매 내외, 장편소설 1편 생활수기 2편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이상으로 응모마감은 9월15일까지이다.

자세한 것은 (213)249-077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제미 장의사

정성어린 마음으로...

제미장의사
 자체건물과 3개의 채플룸을 갖춘
미국 유수의 종합 장례식장으로
 정성스런 서비스와 편리한 파킹으로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고인과 유족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미장의사에서는 묘지구입, 비석설치, 한국 운구 등
장례에 관한 모든것을 상담해 드리며
 친절한국인 직원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장례 서비스 실시간 중계방송
 (전세계 가능)



제미장의사는 설립자 Edward D. Jamie의 아들 리안 제이미(Leon Jamie)씨가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인정신의 장례식장으로 21세기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발맞추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고 전통을 중시하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뉴욕한인회(KAAGNY) 명예한인
Edward D. Jamie Funeral Chapel, LLC
 141-2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1.2660 / 무료전화 1.800.450.3498
 www.jamiefuneralhome.com